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9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4월 28일)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나눔의집’ 감사결과 ‘횡령 · 학대’ 없었다

내부 문제 제기… 광주시청 · 법인 감사 진행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199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쉼터로 개원해 30년 가까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매진한 나눔의집이 최근 운영비리 논란에 휩싸였다. 나눔의집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이 “후원금이 할머니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광주시청 시설 감사와 법인 내부감사 결과, 직원들이 주장한 후원금 횡령과 할머니 학대 등에 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운영 부실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 개선이 요구된다.

광주시청은 4월28일 나눔의집에 감사 결과가 기재된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나눔의집 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 후원금 횡령 등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만 운영상 미비점 5건에 대해 경고 및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광주시청 감사는 직원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나눔의집 법인이 요청한 것이다. 나눔의집 법인 상임이사 성우 스님은 올 2월경 일부 직원들이 나눔의집 횡령과 운영비리 등을 문제삼아 법인에 발송한 ‘제안서’를 확인한 후 내부감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직원들의 거부로 일부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광주시청에 제안서와 공문을 발송해 “직원들의 주장대로 나눔의집에 비리와 후원금 횡령이 발생했는지 직접 감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청 감사결과 나눔의집에 대한 지적사항은 입소자 및 종사자 건강관리 소홀(건강검진 등 미비),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회의 불참시 위임), 운영규정 미비(규정 내용 누락), 보조금에서 상하수도비 42만원과 종사자 급식비를 지출한 문제 등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나눔의집 측은 “감사 결과를 모두 수용하고 개선 · 보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청 감사에 앞서 올초 진행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내부감사에서도 직원들이 제기한 횡령 등의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1월 법인 감사로 선임돼 감사를 실시했던 김민성 회계사는 “당시 감사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제기한 의혹을 검토한 바 있다”며 “후원금 논란은 재정적 문제라기보다 사회복지법과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행정 미숙 등 운영상 미흡에 가깝다. 후원금 등 재정이 외부로 흘러갔거나 횡령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계사는 “후원금으로 생활관과 역사관을 증축 · 건립했다”는 직원들의 지적과 관련, “직접비와 간접비, 지정 · 비지정 후원금에 대한 활용 및 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계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후원금 횡령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 역시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상 노인양로시설이지만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곳이기에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생활관 증축, 위안부 문제 인식확산을 위한 역사관 건립 등이 할머니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며 “후원금 횡령이나 유용은 없다”고 밝혔다. 안 소장에 따르면 현재 65억원 가량의 후원금이 통장에 적립돼 있다.

직원들이 제기한 의혹 중에는 나눔의집 법인 전 상임이사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한 것도 포함됐다. 이들은 “원행 스님이 나눔의집 법인 상임이사 소임을 맡으면서 비상근임에도 보수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계사 등에 따르면 원행 스님은 2018년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18년간 나눔의집 법인 상임이사 소임을 맡았으며, 이 기간 동안 13년은 무보수로,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는 역사관장 소임을 겸직하면서 5년간 매월 100여만원을 받았다. 이 역시 후원금이 아닌 역사관 운영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감사서도 “횡령 아냐”
운영 · 행정 미비점은 지적
경기도청, 5월중 법인감사
감사결과 개선 의지 피력

그럼에도 이번 논란으로 나눔의집은 운영 부실에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시설감사 결과는 물론, 앞서 진행된 사전감사에서도 시설과 법인간 후원금, 공간, 인력 분리가 미비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나눔의집 법인에 대해 5월13~15일 경기도청의 특별지도점검이 진행 중이다.

안신권 소장은 “감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현재 인력을 새로 뽑아 홈페이지 분리, 후원금 계좌 분리, 시설 · 법인간 운영 · 공간 분리 등 법적체계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5월22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시설 감사 결과를 포함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결과를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눔의집 상임이사 성우 스님은 “사실 여부를 떠나 논란이 발생한데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경기도청 감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은 물론,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수국사는 5월 8일~10일 ‘상월묵언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상월선원 결사를 현대인에 맞게 변화시켜 일반인도 쉽게 동참할 수 있게 했다. 사진은 주지 호산 스님과 참가자들이 삼성각 처마 아래서 좌선하는 모습. 사진제공=수국사

상월선원 결사, 신행 · 문화로 이어간다

혹한기 추위 속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한 아홉 스님이 천막 무문관에 들어 용맹정진했던 상월선원 결사정신이 회향 3개월 후 신행 · 문화로 이어진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다큐 영화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기간 안팎의 정진을 담아낸 다큐영화 ‘아홉 스님’으로, 롯데시네마에서 5월 27일 개봉한다.

‘아홉 스님’은 상월선원 결사대중으로 참여한 아홉 스님들의 극한 수행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담아냈다. 한겨울 기간 동안 정진법당 내에서 온기 한 점 느낄 수 없는 대중들이 90일간 무문관 수행으로 정진하며 느낀 바와 에피소드 등을 72분간 차분히 전한다.

이번 다큐영화는 ‘바보야’ ‘법정 스님의 의자’ ‘울지마 톤즈’ 등 김수환 추기경과 법정 스님 등 종교계 지도자들의 일대기를 담은 영상물을 제작한 KBS미디어가 제작했다.

제작을 기획한 김형진 KBS미디어 디지털제작부 PD는 “그동안 종교 다큐영화는 돌아가신 분들을 되새기는 자료의 의미와 남은 기억하는 추모형식이어서 상대적으로 생생한 느낌이 없었다”며 “이번 다큐영화는 살아있는 아홉 스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영화 내부 구성도 결사에 동참한 도림 스님이 직접 나레이터가 돼 현실감이 피부로 와 닿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영화 촬영과 편집을 담당한 윤성준 감독은 “사람의 기본은 의식주인데 이를 제한하고 포기하다시피 치열하게 수행하는 모습은 초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한다. 불교에 문외한인 저를 비롯한 일반인들도 감명을 받을 만하다”며 “한번쯤은 초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선사찰에서는 상월선원 결사정신을 테마로 한 템플스테이도 이어졌다. 서울 수국사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상월묵언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다큐 · 템플스테이 ‘눈길’
5월 27일 ‘아홉스님’ 개봉
수국사선 상월묵언 체험도
연내 회고록 발간 준비 중

상월선원 결사가 철저한 수행이었다면 수국사 상월묵언 템플스테이는 결사 정신을 토대로 수행과 힐링을 접목시켜, 일반 불자들도 부담 없이 동참해 정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상월선원 결사를 회향한 9인의 스님 가운데 한명 이었던 주지 호산 스님이 결사 정신을 대중과 함께하기 위해 고안했다.

상월묵언 템플스테이 첫 참가자들은 윤성이 동국대 총장과 조성환 학교법인 기획관리부장, 김성우 사업부장 등 종립학교를 이끄는 불자들. 여기에 호산 스님이 입방해 직접 프로그램을 지도했으며, 망경산사 하원 스님과 수국사 인공 스님 등도 함께했다.

프로그램은 묵언과 휴대폰 반납, 사찰 밖 외출 금지, 수국사에서 제공하는 음식만을 섭취한다는 4가지 청규에 대한 서약식을 기점으로 2박3일간 이어졌다. 이 같은 청규는 상월선원의 씻거나 이발하지 않고 하루 한끼 공양, 묵언하는 가운데 하루 14시간 정진하는 등의 청규를 템플스테이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호산 스님은 “템플스테이로 보기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상월선원 결사정진의 핵심이 곧 수행정진에 있고, 이 같은 정진이 스스로를 비우고 성장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휴대폰 없이 묵언하며 나 자신에게 몰두했던 모든 시간들이 곧 공부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국사는 6월부터 매주 토요일 ‘묵언명상 day’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5월 15~17일 스키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도 2차 상월묵언 템플스테이가 진행됐다.

상월선원 입재 1주기에는 조계종 출판사에서 상월선원 정진대중의 결사 회고를 담은 회고록도 발간된다. 결사대중 스님 9명의 인터뷰와 함께 결사에 동참한 이들의 사연을 잔잔한 스토리텔링으로 담는다. 또 상월선원 결사정신의 중요성과 남은 과제 등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책 발간을 이끌고 있는 상월선원 대변인 일감 스님은 “영화와 템플스테이, 서적 등 다양한 문화를 통해 상월선원이 남긴 가치를 일반인들과 불자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 송지희 기자

www.boryeon.com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철거–보관–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태고종 분규 종식 '정상화' 기대

15일 판결문 송부… 편백운 스님 멸빈 확정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태고종 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불신임 이후 지속된 분규가 완전히 종식됐다. 편백운 스님의 당선무효 결정에 이어 호법원의 멸빈 판결이 종법에 따라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는 태고종이 오랜 분규로 인한 상처를 봉합하고, 종단 미래를 위한 새 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편백운 스님은 지난 4월 28일 태고종 호법원의 심리종결 및 최종판결에 이어, 종법에 따라 5월 15일 판결문 송부 시점을 기준으로 멸빈됐다. 이로써 편백운 스님의 태고종도로서의 자격은 완전히 박탈됐으며, 불신임 사태 이후 혼란으로 치달았던 태고종 분규도 막을 내렸다.

편백운 스님의 멸빈이 확정되면서 "종단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과제가 이제야 끝났다"는 시각이 많다. 편백운 스님은 불신임 이후에도 이에 반발해 총무원 청사를 불법점거·폐쇄하는 등의 행위로 종단행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종도들의 혼란을 야기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편백운 스님은 신임 집행부에 의해 총무원 청사 불법점거를 종결하고 이에 대한 종단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불신임 무효 소송' 등 사회법 절차를 주장하며 종도들의 혼란을 부추겨 왔다.

태고종 관계자는 "편백운 스님의 멸빈 징계는 종법의 절차대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법과 관계없이 종도로써의 자격을 잃은 것"이라며 "편백운 스님이 멸빈되면서 태고종 공찰 주지를 포함한 종단 소임 자체를 맡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편백운 스님 외에도 법장, 지행, 혜암, 성오, 원응, 진목 스님 5명에 대한 멸빈 징계가 확정됐다.

이와 관련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오랜시간 이어진 분규와 혼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종단의 미래를 위한 첫발을 내딛기 위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 소지는 반드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절차에 따라 그 과정은 다소 더뎠지만 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이제야 매듭을 지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과거 편백운 스님의 방만한 종단 운영으로 인한 종단채무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4월 28일 태고종 호법원이 진행한 최종 심리. 前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의 멸빈이 확정됐다.

종법상 판결문 송부기준
5월15일 징계 효력 발생
호명 스님 "새출발 토대"
"안타까운 사례 등 관련
경감 방안도 모색할 것"

이런 가운데 호명 스님은 "진정한 종단 화합과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랜 분규로 인한 상처를 보듬는 한편, 종단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알게 모르게 와해되고 분산된 종도들을 종단 발전이라는 하나의 원력으로 모아내는 것도 중대한 과제로 남았다.

종단 분규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징계자에 대한 징계 경감 및 사면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호명 스님은 "분규 이후 징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록 종법을 위반하는 등 잘못을 해 징계를 받았지만 정상참작이 가능하거나 혹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례도 존재함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징계는 총무원의 관할이 아니라 초심원, 호법원 등 사법기구의 소관이고 철저히 종법에 의거해 진행되기에 어떠한 예외가 있어선 안된다는 게 확고한 종단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스님은 "종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 징계 경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며 "과거의 과오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소지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진정한 종단 화합을 위해 총무원장으로서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불가피한 이유로 자의와 다르게 관여하게 된 징계자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경감을 위한 방안은 6월 예정된 중앙종회 등에 안건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발목잡혀 진행되지 못했던 원로회의 구성과 종정 추대 등도 6월 중앙종회를 기점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편백운 스님이 종단 징계에 불복하면서 "내부 징계보다 재판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해 온 '불신임 무효 소송' 의 경우 5월 15일 심리가 진행됐다. 그러나 그간 편백운 스님이 진행했던 소송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역시 패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태고종측은 "편백운 스님의 멸빈 징계는 종법에 따라 확정된 것이기에 재판 결과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밝혔다.

조계종, 일선 사찰 분담금 감면 추진

13일 종무회의서 조정키로
사찰 일괄 10% 감면 전망
중앙분담금회의 논의 이후
중앙종회 추경 발의 진행
소외계층 등 마스크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대중들이 4월 30일 열린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입재 법회'서 '약사여래불' 종근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장기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들을 위해 조계종이 올해 책정된 분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은 5월 13일 종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장가화에 따라 사찰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종단 예산에 반영된 사찰 분담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면액은 분담금 요율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사찰에게 분담금 감면이 이뤄진 적은 있지만 종단 소속 모든 사찰들에게 분담금을 감면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조계종의 분담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찰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조계종은 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진 지난 2월부터 감염 예방을 위해 5차례에 걸쳐 지침을 내리고 법회, 강연 등 대중행사를 중단시켰다. 일부 사찰에서는 산문폐쇄를 단행하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

그러나 법회와 신도 교육 등이 중단되고 문화재관람료 수입 등도 감소하면 일선 사찰들이 겪는 재정적 부담과 어려움은 늘어나게 됐다.

이에 조계종 관계자는 "분담금 감면 조치는 5월 중 열릴 중앙분담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후 종무회의를 통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하고 중앙종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면 조치는 그간 종단 지침을 충실히 이행한 일선 사찰을 격려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뤄졌다. 함께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윤사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일선 사찰 3000여 곳과 소외계층에 마스크 50만 장을 배포한다. 마스크 배포는 5월 30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법진 스님, 이사장 4연임 안된다"

선학원 분원장 입장문
9월 임기 종료 앞두고
'4연임·수렴청정' 우려
이사회 정상화 촉구도

(재)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임기가 9월 17일 종료되는 가운데, 선학원 창건주·분원장 스님들이 이사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학원미래포럼 창건주·분원장협의회(회장 자민)는 5월 14일 '제20대 (재) 선학원 이사장 선출에 대한 창건주·분원장의 입장' 을 발표했다.

창건주·분원장 스님들은 입장문에서 "이사장 임기만료가 다가오면서 법진 스님이 4번째 연임을 위해 모의한다는 소문부터 대리집권 등 제20대 이사장에 대해 갖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사회는 명확하게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건주·분원장 스님들의 이 같은 우려는 법진 스님이 지난 2019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으로 대법원으로부터 6개월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 따른 것이다.

창건주·분원장 스님들은 "이사회는 2012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부산의 모 스님에 대해 '창건주 권한 박탈' 을 결의했다"며 "왜 법진 스님에 대해서는 징계조차 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인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지도자도 장기집권의 유혹은 경계한다"며 "참회하고 근신해도 부족할 성범죄 전과자가 청정승풍을 창립이념으로 하고 있는 선학원에서 '4연임' '수렴청정' 을 도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창건주·분원장 스님들은 이에 20대 이사회는 여법하게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들은 "전국 창건주·분원장이 모두 선학원의 주인이기에 20대 이사장 선출은 창건주·분원장의 의사를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지희 기자

템플스테이 우수사찰 39곳 선정

문화사업단, 만족도 등 평가… "위로·희망 전하길"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이 5월 13일 2019템플스테이 우수운영사찰을 선정·발표했다.

문화사업단은 2019년 기준 전국 137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중 39곳이 템플스테이 우수 운영사찰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7곳, 경기 8곳, 경상 8곳, 강원 3곳, 전라 5곳, 충청 7곳, 제주 1곳이다.

문화사업단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별 운영 실적, 운영 인력, 참가자 만족도, 나눔 템플스테이 활동, 홍보 활동 등 15개 항목을 종합평가해 연도별 우수 운영사찰을 선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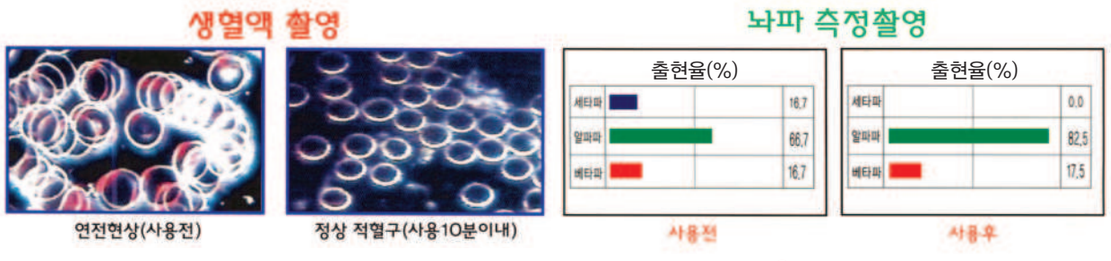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코로나19가 길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심한 피로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템플스테이를 통해 이 사회에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킨다!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체외에는 머리부터 발가락 사이까지 BLOOD MATE®비누

폐렴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비누로 샤워하고 물기를 닦은후 재차 샤워타월을 깨끗이 빨아 짠 후 비누를 다시 묻혀서 거품을 내어 머리부터 발바닥, 발가락 사이까지 거품으로 맛사지하면 머리거품이 가발을 쓴것 같지만 전신을 맛사지하는 동안 거품이 세포속으로 스며들고 전신의 거품도 세포속으로 스며들며 거품이 없어지면서 엉켜있는 연전현상의 적혈구는 정상적혈구로, 뇌파는 안정되고 혈액이 맑아지므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허리통증, 어깨, 목아픔과 다리에 쥐나는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보약을 먹은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번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체내에는 구강부터 항문까지 ORAL MATE®치약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ORAL MATE®치약은 양치후 뱉어내지 않고 복용하면 구강부터 항문까지 사이에 폐렴균에 의한 질환개선과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과식·과음시에는 속이 빨리 편안해지며 해독되면서 정신이 맑아지고 잇몸이 튼튼해져 별도의 잇몸약이 필요없고, 이나 잇몸이 아플때에는 부위에 치약을 발라만 줘도 밤새 통증이 사라진다.

포도상구균(화농성 세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가려움증, 비듬, 발뒤꿈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때를 일부러 밀지않고 거품으로 마사지 하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 보습과 투명피부의 효과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BLOOD MATE® 강비누: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세정제인 비누, 치약이 별도의 추가부담없이 비누는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 정상화에 의한 피부질환 개선, 치약은 잇몸건강은 기본이고 소화불량,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진다면 이는 정부가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하고 장려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정책입니다.

“코로나 극복, 가족연등에 담아요”

현장

봉축 앞둔 조계사, 가족연등공방 만원

10일 행사에 열띤 호응 눈길
40여 가족 참여해 연등 제작
쉼터 · 푸드트럭 배려 돋보여
지역 농산물 등 참가선물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5월 10일 조계사서 열린 가족 연등공방에 참여한 조손이 연등을 함께 만들고 있다.

생활방역의 첫 주말을 맞아 서울 조계사 앞마당이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는 분위기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부처님 앞에서 코로나가 끝나고 놀수 있게 해달라는 바람을 담은 목소리를 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5월 10일 경내에서 ‘가족과 함께 연등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연등 만들기 행사에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참여한 가족들은 맑은 날씨 속에 저마다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봉축 프로그램 대부분이 취소되는 가운데 진행된 몇 안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했다. 5월 30일로 부처님 오신날이 연기되며 연등공방 개장도 한달 가량 지연돼온 터였다. 다른 행사들이 없는 가운데 열린 만큼 ‘가족과 함께 연등 만들기’ 행사는 어느 때보다 참석 열기가 높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른 생활방역 첫 주말이어서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인사동 일대에 많은 시민들이 조계사를 방문했다.

이태원 코로나 확산 문제 등으로 다시금 집단감염의 문제가 제기된 상태서 조계사는 최대한 가족간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40팀의 가족이 참여했다. 연등 공방은 오후 1시 개장될 예정이었지만, 참가가족들은 일찍 도착해 발열 점검 등을 완료했다.

조계사 측은 2019년에 비해 테이블 간 넓은 공간을 배정하고 테이블 사이마다 소독제를 비롯한 위생 용품을 제공했다. 참가한 가족들도 아이들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일부는 손에 장갑도 낀 모습이었다.

처음으로 사찰에서 연등을 만들어 보는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색종이와 연등에 붙일 한지를 가위로 자르거나 접어 조계사에서 제공한 틀에 붙이기 시작했다.

이날 가족이 함께 연등만들기는 ‘행복한 우리가족’과 ‘코로나19극복 염원’의 2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온 김상현 씨는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있었는데 가족이 모처럼 함께 모여 밖에 나오니 좋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는데 사찰에서 가족 외에는 서로 접촉을 안하게 하고 야외에서 연등을 만들게 되어서 안심이 된다”며 “이태원 코로나 확산으로 마지막까지 참여를 고민했는데 오길 잘한 듯 하다”고 말했다.

4살 아이와 함께 참여한 문상은 씨는 “아이들과 외출하면 되도록 야외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찰은 법당 외에 대부분의 공간이 열려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조계사는 이날 사찰을 찾은 이들을 위해 차와 음료,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푸드트럭을 섭외해 배치했다. 쿠폰을 들고 푸드트럭에서 커피를 마시는 어른들과 군것질을 하는 아이들까지 조계사 앞마당은 일종의 놀이동산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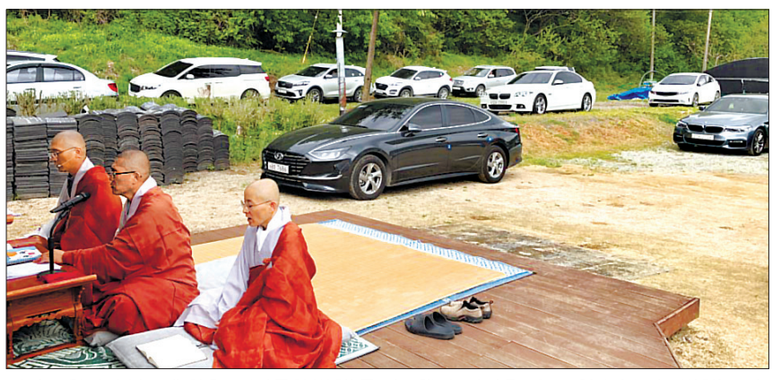
행사는 2시간 여 동안 진행됐으며, 참가아이들에겐 장난감이 부모들에겐 조계사와 연계된 해남군의 김 등 농산품이 선물로 전해졌다.

조계사 포교국장 상범 스님은 “이번 연등 만들기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불교 역사상 첫 ‘자동차 법회’ 눈길

서산 보원사, 5월 11일
미소기도법회 시범운영

차량서 라디오로 동참
6개월 무선국 개설 허가


서산 보원사가 불교계 최초로 ‘자동차 법회’를 시도했다. 사진은 5월 11일 ‘미소기도법회’ 모습.


사진제공=보원사

‘백제의 미소’ 마애부처님을 모신 서산 보원사 법당 앞마당에 수많은 자동차들이 마치 참배하듯 법당을 향해 줄지어 주차됐다. 스님들은 법당 안이 아닌 외부에 법석을 펼쳐 마이크로 독경을 하고, 사람들은 모두 자동차 내부에 앉아 법당을 향해 합장했다. 손엔 저마다 법요집과 염주를 가진 채다. 코로나19 사태가 빚은 이색풍경 ‘자동차 법회’ 현장이다. 서산 보원사(운영위원장 정경, 주지 단경)가 5월 11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미소기도 자동차 법회’를 봉행했다. 신도들이 법당이 아닌 법당 밖 주차된 자동차에 앉아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예불하고 법문을 듣는 방식이다. 불교 역사상 첫 ‘자동차 법회’다.

자동차 법회 봉행을 위해 보원사는 사전에 대전전파관리소로부터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았다. 코로나 19사태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종교계를 위한 특별배려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신청 받은데 따른 것이다.

주파수를 활용한 자동차 법회는 사찰 내 공간에 신도들이 자동차를 주차하고, 각기 배정받은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법당에서 진행되는 법회를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며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다. 특히 비대면 형식이라 감염예방에 효과적이면서도, 같은 공간에서 직접 동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날 보원사 미소기도법회는 시범운영임에도 예상 밖의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등 시작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보원사 신도인 노모를 모시고 법회에 참석한 한 가족은 “사찰에 가고 싶다고 해도 감염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말렸는데 이렇게 자동차에서 기도할 수 있으니 새롭고 좋다”며 “앞으로도 계속 참석할 생각”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보원사운영위원장 정경 스님은 “코로나19로 사찰이 3개월간 산문을 닫았고 좀 나아졌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 끝에 주파수를 신청하고 FM송출기를 구입해 자동차 법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첫 시도이고 전반적으로 낯설 수밖에 없는 법석이었지만, 현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으로 생각돼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보원사는 부처님오신날인 5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자동차 법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코로나19 소외계층 돕는 사람들
② 쪽방촌서 배식봉사 이어가는 김윤석 경감

“코로나로 배곯는 노숙인 생각을”



코로나 대비 대체식 전달
노숙인 지원 감소 안타까움
“젊은 불자 관심 필요해”

영등포의 철길 옆에는 1평에 불과한 판잣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마을이 있다. 오갈 데 없는 노숙인들의 마지막 거주처로 불리는 쪽방촌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 더 힘든 노숙인들을 위해 한결같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김윤석 마포경찰서 경감(형사팀장)이 주인공이다.

김윤석 경감은 코로나가 한창인 때에도 매주 목요일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할 때 그는 어려운 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영등포 쪽방촌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노숙인들이 밀집된 곳이다. 거주환경이 열악한 이곳에는 600여 명이 넘는 노숙인들이 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일조차 하기 힘든 소외계층들이다. 기초생활수급에 의존하는 이들을 위해 김 경감은 2001년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급식봉사를 하고 있다.

김 경감의 봉사에는 수십 년간 함께해 온 불자들이 있다. 바로 쪽방도우미봉사회(조계사 붓다맘봉사단)다. 김 경감은 “이제는 서로 말을 안해도 이해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봉사자들이 노숙인들을 더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그나마 있던 이들에 대한 지원이 떨어지면 어떻하나 해서 말이죠. 일단은 접촉은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함께 소독제, 초코파이와 음료수 등도 같이 전달하고 있어요.”

본인의 감염위험도 높아지지만 김 경감은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는게 진짜 봉사”라고 강조했다.

김 경감과 쪽방촌도우미봉사회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국수공양에는 예전 같았으면 길게 줄을 서고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배식소를 찾는 이들의 건강이 우려됐기에 김 경감은 시간대별로 따로 포장된 음식을 전달하기로 했다. 거리를 두고 노숙인들이 음식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봉사를 진행했다.

음식을 포장하는 등 다소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코로나가 심해져도 그만둘 수 없었던 것은 매주 그를 기다리는 이들 때문이었다. 봉사가 빠지는 날이면 연락이 올 정도로 그와 쪽방촌 노숙인들은 가족 같은 관계가 됐다.

김윤석 경감은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고 경계했다. 일회성에 끝날 거란 시선도 있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하다보니 마음을 여는게 보였다. 이젠 서로 안보이면 걱정할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김윤석 경감은 코로나가 끝나면 젊은 불자들의 봉사 참여가 이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십수년간 봉사를 진행하며, 기존의 봉사회원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젊은 봉사자들의 참여가 절실해서다.

“아무래도 음식을 만들다보면 봉사자분들이 더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도 나이가 드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함께 계속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김 경감은 최근에는 봉사회원들과 함께 예전 근무처였던 강서구 지역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영구임대 아파트가 많은 이 지역에는 독거어르신을 비롯해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

김 경감은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고 우리사회에서 필요하는 곳에서 더 많은 봉사를 하는게 남은 꿈”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는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 바로 공부이자 실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후원문의 (02)2043-3610
후원계좌 317-0009-1736-21 농협
사단법인 쪽방도우미봉사회





보물 제1040호 화엄사 석경(사진 왼쪽)과 보물 제390호 광덕사 소장 상지은니 묘법연화경. 한국 사경역사를 보여준 문화재로 불교중앙박물관에서 7월 30일까지 전시된다.

보물 '화엄사 석경' 한자리서 만난다

불교중앙博 '전통사경의 본지풍광' 展

화엄사 사경원 개원 기념해
7월 30일까지 테마전 진행
화엄석경 · 고려사경 등 전시
사경연구회 현대사경 작품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화엄사 석경 등 한국 사경 역사와 문화를 한 자리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문)은 5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2020년 테마전 '전통사경의 본지풍광' 전을 개최한다.

화엄사와 한국사경연구회가 함께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화엄사가 소장한 화엄사 석경(보물 제1040호) 40여 편이 서울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또한 전통사경의 정수를 이루었던 고려시대 사경인 천안 광덕사 소장 '상지은니 묘법연화경(보물 제390호)', 부안 내소사 소장 '백지묵서 묘법연화경(보물 제278호)' 도 함께 전시된다.

'사경수행 원년의 해'를 선포한 화엄사가 전통사경원 개원을 기념하여 마련한 이번 전시는 한국사경연구회 회원들이 직접 조성한 전통사경과 현대사경 40점도 함께 선보인다. 조선시대 이후 명맥이 끊긴 한국 전통사경의 복원을 주도한 한국사경연구회 김경호 명예회장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이 참여했다.

전통사경의 본지풍광은 전통사경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르는 말로, 선조들이 남긴 빛나는 사경 유물들을 볼 때 반드시 법으로 삼아야 할 서체가 있다는 말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경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화엄사 석경에서 그 시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화엄사 화엄석경은 사경 역사에서 서체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성보문화재로 모든 사경 수행자가 근본으로 삼아야 할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화엄사 석경은 670년(문무왕 10)에 의상대사가 화엄사를 중창할 때 왕명으로 3층의 장륙전을 조성하고 주위에 석각(石刻)의 화엄경을 둘렀다고 〈봉성지(鳳城誌)〉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797년 한역된 정원본 40권 〈화엄경〉이 포함되어 있어 시기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 밖에도 통일신라 말로 추정하는 등 화엄사 석경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전하지만 모두 석경의 조성 연대의 확실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진응은 이 석경이 헌강왕대에서 경순왕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정했다.

장륙전을 두르고 있던 이 석경은 임진왜란 때 파손되어 일제강점기까지 각황전 둘레에 돌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그 후 일제강점기 말에 각황전 해체 보수 과정에서 진응의 노력으로 그 파편들이 정리됐다.

현존하는 석경편은 1만4000여 점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대중소로 나누어져 163상자로 분류, 정리되었는데, 석경편의 크기는 몇 자에서부터 50자 이상에 달하는 것도 있다. 파편으로 남았지만 신라 후기 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다. 화엄사 석경은 1972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1호로 지정됐다가 1990년 보물 제1040호로 승격됐다.

중국에서는 삼무일종(三武一宗)의 법난에 이르러 불경의 소멸을 막기 위해 석경의 조성이 유행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석경이 크게 유행하지 못했다. 다만 화엄사 석경 외에 경상북도 경주 내남면 배리에서 수습된 법화석경과 경주 남산 칠불암에서 출토된 금강석경 파편 등이 발견되었을 뿐이다.

이번 전시는 법사리를 대표하는 화엄사의 화엄석경과 고려사경 그리고 이를 재현한 현대의 전통사경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전시로 우리 불교문화의 정수를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명 · 만당 · 진명 스님, 무형문화재위원 위촉

문화재청 위원 27명 위촉
위원장 신탁근 고문 선출



원명 스님



만당 스님



진명 스님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 영광 불갑사 주지 만당 · 시흥 법련사 주지 진명 스님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제3대 무형문화재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8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제3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위원 27명과 전문위원 3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임기는 2022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위원장으로는 신탁근 온양민속박물관 상임고문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으로는 김영운 국악방송 사장과 최종호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선임됐다.

불교계에서는 원명 · 만당 · 진명 스님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전통예술 분과 위원으로 위촉된 원명 스님은 조계종 의례위원장과 (사)생전예수재보존회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삼화사 수륙재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이끌었으며, 현재도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문화재 지정에 힘쓰고 있다.

전통지식 분과 위원으로 위촉된 만당 스님은 불갑사성보박물관장과 조계종 前 기획문화특보를 역임했다. 진명 스님은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번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기술 분과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이와 함께 조계종 성보위원인 김정희 원광대 교수와 안귀숙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도 무형문화재 전통지식 분과에서 활동하게 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무형문화재 정책,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 보유단체 지정 · 해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분야 간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무형문화재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해 회의별 주요 안건과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위원들을 탄력적으로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016년 출범했으며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조사 ·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문화재청 비상근 자문기구다. 신성민 기자

Interview

"번안번역 역경사 양성 종단 차원 관심 필요"

신임 동국역경원장 혜거 스님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글을 한문으로 만들어 내는 역량 또한 역경에서 중요합니다. 번안번역의 역경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동국역경원장 혜거 스님이 역경원장 취임을 맞아 한국불교 역경인재 불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국역경원이 역경역량 확대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혜거 스님은 5월 11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 임원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혜거 스님은 4월 9일 역경원장에 임명됐다. 역경기금으로 동국대 기부부터 역경원장 취임 이후 스님은 역경원 방향에 대한 교계 스님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취임 한달만에 혜거 스님이 기자간담회까지 열게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바로 역경불사의 중요성 때문이었다.

현재 동국역경원은 불교학술원이 추진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사업인 ABC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대장경 서비스를 진행하며,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화와 문화 저본으로서의 불교고전 활용의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기 위함이다.

스님은 무엇보다 역경인재 양성에 종단차원의 힘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스님은 "결국 불교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은 불교의 고전에서 그 방향을 읽는 데서 시작한다"며 "스님들이 앞선 현대화된 기술을 익히는 것도 좋지만, 근본에 그 힘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스님은 미래 역경인재들의 중요한 역량으로 한글을 한문으로 번안번역하는 것을 꼽았다. 스님은 "예를 들어 비문만 하더라도, 한문 비문을 쓸 수 있는 젊은 스님들은 극소수다. 결국 고전을 현대화하고, 대중화하는 작업 이전에 역경사들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이 고령의 나이에도 역경원장으로 나선 것은 은사인 탄허 스님과 역경원과 엮인 인연 때문이다. 1959년 삼척 영은사에서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혜거 스님은 행자시절부터 은사인 탄허 스님을 시봉하며 사실상 한국불교 역경의 변화를 함께 했다.

"영은사서 행자시절 스님은 행자들이 강의를 듣도록 했어요. 당시 영은사 주지 스님이 행자들 일을 대신할 정도였습니다. 은사 스님과 월정사서 사집 사교 공부를 마치고 스님이 용주사 역경장 소임을 맡으며 거기서 자질구레한 일을 하게 됐지요."

당시 역경장에는 많은 스님들이 역경불사에 참여했다.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이 당시 탄허 스님 문하서 배운 역경인재 중 대표인사다.

혜거 스님은 "역경을 오래 하다보니 결국 남아있는 사람이 돼 이렇게 맡게 됐다"며 "그만큼 앞으로 역경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키워내는 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한국고전번역원이 옛 문헌 번역을 맡고 있는데 동국대 역경원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고전번역 하면 동국대가 떠오르도록 인재 양성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그 방안으로 한문교육 등의 강화를 시사했다. 현재 불교학술원에는 한문아카데미 등이 있지만 스님은 역경원 차원에서도 이를 강화할 예정이다.

스님은 "한문을 잘 구사하기 위해서는 한문의 명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게 좋다. 고전 전체를 외우고, 한시를 300수 가량 외우면 이를 활용한 명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히 불교는 〈대승기신론〉을 외우면 불교 한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역경역량 강화와 함께 최근 사회에서 화두로 떠오른 디지털 사업에 대한 동국역경원의 방향도 향후 진단할 예정이다.

"고전에 관한 최고 기관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고전 번역과 현대화, 대중화 작업은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를 한 단계 높일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코로나 극복’에 韓日불교 함께해

日신뇨엔, 코로나 극복 동참

소의경전 〈대반열반경〉 독경
종파와 국경 넘어 하나되다
세계 평안과 건강을 기원해
“운명공동체로 함께 극복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일본 종단 신뇨엔 부산정사가 5월 10일 부산 송상현 광장 특설무대에서 부산연등문화제 ‘코로나 19 극복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한국의 국운융창 발전을 기원했다.

신뇨엔(眞如苑)은 〈대반열반경〉을 소의경전으로 수행하는 일본 불교 종단이다. 일본 진언종 전등법맥을 잇고 있다. 신뇨엔에서 수행하는 불자들이 한국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안정되기를 기원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산불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호국 릴레이 기도에서다. 신뇨엔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세계일화(世界一花)를 실천하는 장이며 다함께 기도하는 원력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 갈 것”이라고 참여 취지를 밝혔다.

신뇨엔 부산정사(이사 정경)는 5월 10일 부산 송상현 광장 특설무대에서 부산연등문화제 ‘코로나 19 극복 릴레이 기도’에 동참했다.

신뇨엔은 기원독경 의식에 앞서 입정으로 시작을 알렸다. 이어 부처님께 발원문을 낭독하며 병마를 이겨내 함께 일어서기를 기원했다.

신뇨엔 정경 국원은 “나와 가족, 이웃은 더불어 사는 운명공동체이다”며 “인종과 종교, 국경과 신분을 초월하여 지구촌 모든 인류가 화합하길 바라며 서로 용기를 북돋아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가 불자들은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자 유언이었던 〈대반열반경〉을 독경했다. 〈대반열반경〉에 있는 삼귀의부터 차례대로 독경하자 길을 지나던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함께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김지희(34 · 연제구)씨는 “독경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진다. 일본 종파는 솔직히 처음 봤는데 한국을 위해 기도를 한다니 국제 상황과 달리 역시 불자들다운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미영(44 · 부산진구)씨는 “불교 독경 소리를 들으러 6시쯤이면 송상현 광장으로 나온다”며 “오늘은 일본어라 새로웠고 내 마음도 화합을 기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신뇨엔 기도 독경은 부산불교연합회에서 준비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돼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신뇨엔 정경 국원은 “재난을 극복하기를 기원하며 현재 일본 총본산에서도 기원을 올리고 있다”며 “오늘 기도는 종파와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로 퍼져 갈 것이며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한국불교를 보면서 정말 남다르고 훌륭하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신뇨엔의 ‘신뇨’는 ‘여여(如如)’를 상징하는 ‘진여(眞如)’에서 나왔으며 〈대반열반경〉(소의경), 전등법맥(재가출가), 신통영묘(접심수행)를 근본으로 삼아 수행한다. 신뇨엔은 1936년 개조 이토 신죠(1906~1986)가 개창했으며 현재 전 세계 20개국에 정사를 두고 있다. 개조 이토 신죠는 일본 진언종 본산인 교토 제호사에서 수행했으며 재가불자를 위한 수행체계를 확립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지도했다. 현재 한국에는 서울정사, 부산정사, 창원포교원, 제주포교원이 있으며 특히 부산정사는 장학금 지원, 불우이웃돕기 등 지속적인 보살행으로 한 · 일 불교 간 화합 교류 주자로 앞장서고 있다.

미타선원, 청소년 위한 전문복지 나서

(재)영도문화복지재단, ‘청소년 상담복지 및 지원센터’ 개원



재)영도문화복지재단이 부산 중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개원했다. 사진은 제막식 모습.

(재)영도문화복지재단이 부산 중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개원했다.

영도문화복지재단(이사장 하림)은 5월 11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개소식을 봉행했다.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이사장 하림 스님, 법인 이사 종호 스님과 하태완 센터장, 최진봉 중구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마음 편한 공간’이 모토이다. 대상은 9~24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이다. 여러 상황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위해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꿈드림은 교육과 취업, 자립을 지원한다. 건강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부산 중구 남포동에 위치한다. 남포동은 부산을 대표하는 번화가 중 하나이다. 술집 및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시설이 많은 곳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자리했다. 아이러니하지만 오히려 기대를 모은다. 번화가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을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번화가 중심에서 도심포교 일선에 서 있는 미타선원과 닮았다. 오고가는 관광객들과 외국인들에게 문이 언제나 열려 있어 쉽게 한국불교문화를 접하도록 돕지만 그만큼 위험도 많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접근성은 좋지만 청정한 환경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을 위해 미타선원은 60여 평에 가까운 3층 센터실 뿐 아니라 건물 지하도 임대했다. 지하에는 단란주점이 방문하는 청소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번화가 중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자리하게 된 것은 미타선원의 노력으로 가능했다. 미타선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명상을 꾸준히 진행하며 본격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심해왔다. 재단법인 영도문화복지재단을 출범 후 체계적으로 청소년을 돕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수탁업체로 공모해 올해 1월 30일 선정됐다. 이후 2월 중구청과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전문 상담과 행정을 이끌어 갈 직원을 채용했다. 지난 4월 20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지만 개소식은 코로나19로 인해 5월에 개최됐다.

개소식에서 재단 이사장 하림 스님은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지만 정서적 돌봄 및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새롭게 탄생한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 이사 종호 스님은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 큰 재산이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하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당선 후 첫인사를 하는 행사인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가 문을 열어 기쁘다”며 “중구는 부산의 중심가이고 청소년이 많이 찾는 곳이다. 청소년을 위한 맑고 청정한 공간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태완 센터장은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위해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청소년 복지 구심점이 되고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녕 도성암 불교대학 졸업식 개최

대휴 스님 “신행의 출발점이자 행복” 강조


도성암이 5월 10일 경내 일대에서 ‘도성암 불교대학 및 예향다회 졸업식’을 진행했다.

창녕군에서 바른 신행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는 도성암 불교대학이 졸업식을 진행했다.

창녕 도성암(주지 대휴)이 5월 10일 경내 일대에서 ‘도성암 불교대학 및 예향다회 졸업식’을 진행했다. 졸업식에는 주지 대휴 스님과 한정우 창녕군수, 윤영삼 동문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졸업식은 개식을 알리는 타종에 이어 △헌다(예향다회6기 졸업생) △삼귀의 △찬불가△반야심경 봉독 △내빈소개 △졸업장 수여 △상장수여 △예향다회 졸업장 및 수료증 수여△입학생 선서 △축사 △사홍서원 △산회가 순으로 진행됐다.

불교대학 성적 우수상은 김정숙 졸업생이 받았으며 불교대학 표창장은 서정태 · 신선정 졸업생, 불교대학 개근상은 서운곤 · 김종희 · 최현옥 학생이 수상했다.

대휴 스님은 “졸업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란 말이 있다. 부처님의 진실한 참 뜻을 알고 대중포교와 자비행을 실천해 진정한 행복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성암 불교대학은 2008년 3월 불교대학 제1기 입학식을 시작으로 현재 13기 졸업생을 맞았다. 졸업생은 총 312명으로 창녕군에서 불교 포교사 양성지로 활동해왔다. 졸업과 동시에 20명의 학생이 입학했으며 아울러 불교문화를 통한 포교를 위해 예향다회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군산 동국사 군산불교대학 개설

지혜와 자비 겸비한 불자양성 목표



전국에서 불교세가 가장 약한 지역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 군산에 불교대학이 개설됐다. 국내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는 5월 11일 동국사 100주년 기념관에서 군산불교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군산지역에서는 최초로 조계종 신도 전문교육기관 인가를 받은 군산불교대학은 1년간의 교육과정 동안 조계종의 신도교육전문 교재를 활용해 불교입문, 문화재 답사 등의 교육과정과 불교와 환경, 불교와 법률 등 전문 강사진의 특강과 염불, 불화배우기 동아리 활동 등 알찬 교육일정으로 진행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안동불교사암聯 불기 2564년 봉축 점등식

안동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륜)는 5월 9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기원하고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불기2564년 봉축점등식을 안동시 웅부공원 내에 위치한 시민의 종각 앞 광장에서 봉행했다.

점등식에는 안동불교사암연합회장 도륜 스님과 고문인 천태종 해동사 덕중 스님과 구덕암 안동불교거사림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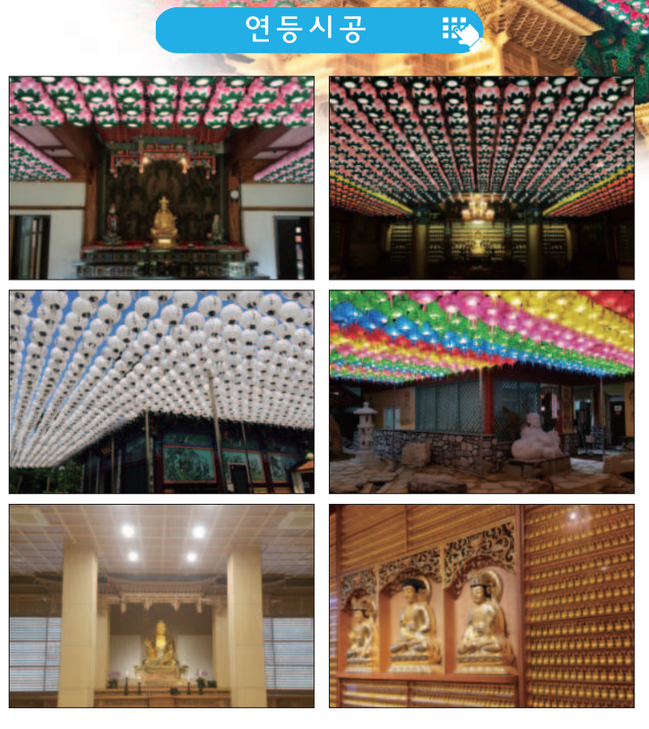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 현불 논단 |

공멸의 탐욕 '이기심'



선업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이태원 클럽發 집단간염 사태 심각
코로나19 확산 위험 또 다시 '증폭'

박노해 "'나쁜' 어원은 '나뿐'" 저술
'나뿐'이란 이기심이 현 사태 초래해
청년기 나타나는 '반사회성'도 원인
일반인 '내로남불' 같은 경향 설명돼

'我癡·我見·我慢·我愛' 자아 이기심
부처님 "오염된 마음, 괴로움 따른다"
'연기적 공동체'를 지혜 등불로 삼길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 사태가 'n차 감염'을 일으키며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1세 영아에서 80대 노인까지 남녀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확진되는 등 코로나19 위험이 다시 증폭된 것이다.

'잠시 멈춤'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이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 싶어, 생활방역 단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자마자 슈퍼급 전파자를 몰고 코로나19가 재등장했다.

당혹스럽게도 확진자수 제로를 허문 이번 사태의 주역으로 젊은이들과 그들의 클럽 문화가 등장했다. 실내라는 막힌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결과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전염이라는 민폐로 나타났다. 더불어 확진자가 나온 회사는 폐쇄 및 분산 근무라는 유탄을 맞게 되었다.

이번 확산 사태를 보면서 '나쁜'의 어원은 '나뿐'이라고 한 박노해 시인의 글과 나쁜 사람은 없는데 나뿐인 사람은 있다는 우스개가 떠올랐다. 나뿐인 이기심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거나 남의 이해는 돌아보지 않는 마음'으로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데 고장난 사고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이번 사태는 결국 사고가 고장난 사람들이 일으킨 '나뿐 신드롬'의 한 전형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 신드롬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로 '반사회성'이 있다. MMPI라는 다면적 성격검사의 4번 척도의 이름이다. 대부분 청(소)년기에 이 척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 시기에는 충동을 즉각적으로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동해 버리거나 섣부르고 잘못된 판단으로 위험을 무릅쓰는 경향이 높게 형성된다. 젊은이들이 사회적 약속을 가볍게 무시한 배경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경향성은 '내로남불'의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차에 타고 있을 때는 늦게 가는 행인을 욕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경적을 울리는 운전사를 욕한다' 든지 '남이 천천히 차를 몰면 소심운전이고, 내가 천천히 몰면 안전운전이다'라는 등의 왜곡된 인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들을 위해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모든 행위는 마음(마노)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들어 낸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 수레가 황소를 뒤따르듯이"

유식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마노'라는 마음을 제7식이라 부르고 이기심이 있는 자아의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라고 하는 강력한 아집이 본원인 이 의식에는 4가지 번뇌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아치(我癡)로 무아의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마음이며, 두 번째는 아견(我見)으로 '고정된 나'가 있는 줄로 잘못 알고 일으킨 소견, 자기주장, 고집 등을 말한다. 세 번째인 아만(我慢)은 자기가 잘났다는 교만, 거만, 자기 우월감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아애(我愛)는 자아에 대한 집착, 애착 그리고 자기만을 최고로 여겨 사랑하는 이기심을 의미한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삼계(욕계·색계·무색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이들을 참자유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현란하듯 어두운 무명의 클럽에서 해소하려던 젊은이들의 몸부림은 대중의 고통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아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존재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적 공동체 관점을 지혜의 등불로 삼아 사회적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겠다.

社 說

상월선원 결사정신 계승 필요

지난 2월 10일 '문없는 문'이 열렸다. 지난해 가을 녘에 시작된 아홉 스님들의 무문관 정진은 엄동설한 겨울이 지나 매화내음이 느껴질 때 쯤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마침표를 찍었다.

결사 회향 후 3개월 지난 지금, 결사 정신 계승과 선양을 위한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가장 주목 받는 것은 다큐 영화인 '아홉 스님'으로 롯데시네마에서 5월 27일 개봉한다. 다큐 '아홉 스님'은 상월선원 결사대중으로 참여한 아홉 스님들의 극한 수행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담아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서울 수국사가 5월 8~10일 진행한 '상월묵언 템플스테이'도 눈길을 끈다. 상월선원 결사를 회향한 9인의 스님 가운데 한명이었던 주지 호산 스님이 결사 정신을 대중과 함께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상월선원 청규를 묵언과 휴대폰 반납, 사찰 밖 외출 금지, 수국사 제공 음식만 섭취 등 현대인에 맞게 변화했다.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입재 이후 한달여 만에 5만 명 이상 사부대중이 현장을 다녀가고 스님들의 수행을 응원하며 자신들도 정진한 결사는 흔치 않다. 이 같은 조용한 곳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부수고 천막 무문관을 설립해 석달을 오롯이 수행한 아홉 스님의 정진력에 감화됐기 때문이다.

문화와 신행으로 상월선원의 결사를 이어가는 것은 환영할만 한 일이다. 앞으로도 사부대중은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를, 뜨거웠던 에너지를 어떻게 한국불교 중흥으로 연결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불교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나눔의집 논란, 성장·발전 계기돼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이 때 아닌 운영논란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공교롭게도 '정의기억연대' 논란 시점과 겹치면서 '위안부 피해 지원단체'를 향한 시선이 싸늘하다.

나눔의집 일부 직원들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는 민원은 '후원금 의혹'과 관련돼 있다. 후원금 관련 의혹은 신뢰도와 직결된다. 자체시설로 건립돼 30년 가까이 피해할머니들을 보호·케어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길만을 걸어온 나눔의집이기에 그 상처가 더 깊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진행된 광주시청 감사와 법인 내부 감사에서 '횡령'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경기도청의 특별지도점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더 지켜볼 문제다.

무엇보다 이번 논란에는 나눔의집의 잘못이 분명히 존재한다. 운영규정 미흡부터 비록 소액이지만 용도와 다른 보조금 사용 등은 철저한 운영관리 부족을 엿보게 한다. 시설과 법인 간 공간 및 인력 분리, 후원금 계좌 분리 등 지적사항도 마찬가지다. 후원금 횡령이 없었더라도 법적 기준에 미흡한 운영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이번 논란이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상처를 딛고 개선하고 보완해 어디에 내놔도 당당한 운영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고충도 있을 것이다. 사실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상 양로시설이지만, 일반 시설과 달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확산 등이 나눔의집의 주요한 활동이나, 정작 이에 대한 근거는 사회복지법과 규정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나눔의집은 변화해야 한다. 더 멀리, 더 깊이 내다보며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질 때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과거보다 우월한 사람이 되라

바람 좋고 햇살 좋은 날, 북촌을 걷다가 어느 담벼락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하려고 고민하지 마라. 지금의 나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중요하다."

무심하게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누군가가 쓴 글입니다. 경쟁으로 내몰린 현대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글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선 다른 누군가가 실패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사회 전체가 경쟁 의식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승리 아니면 패배, 승자 아니면 패자 이런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서 이기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남을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정글의 법칙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경쟁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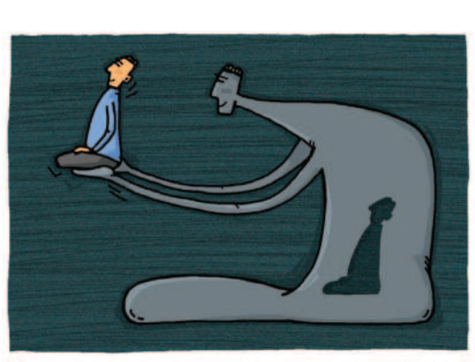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방식으로 경주로를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자신의 승리를 위해 누군가 패배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젠 무한경쟁이 아니라 무한 향상 혹은 무한 전진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무한 경쟁은 욕망에서 출발해 자기 이익과 돈을 위해서 경쟁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 향상이 되면 자신의 일에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알기에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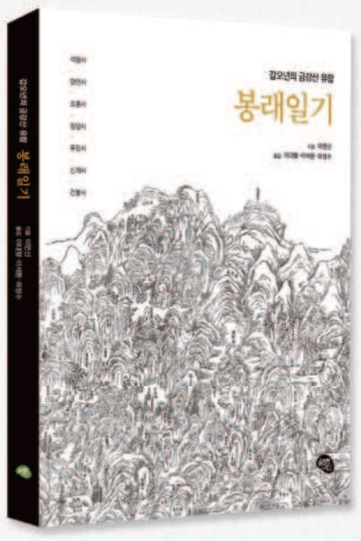
그러다보면 존경 받게 되죠. 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의미를 알고 일한다면 돈과 명예는 저절로 따라 오는 것이며, 이것은 정당한 돈과 명예입니다. 이는 나와 남을 이롭게 합니다. 무한 경쟁은 돈과 명예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해치는 역기능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나도 이기고 상대도 이기는 상생(相生)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둘 다 살아남는 생존 방식이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 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어제의 나보다 더 향상된 자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죠. 경쟁 않고 이기는 것은 자신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껏 발휘한 자신의 최고 수준을 뛰어넘는 것, 과거의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봉래일기
갑오년의 금강산 유람
1894년, 승려가 쓴 '금강산 여행기'… 새롭게 발굴
여정 속에 기록된 불교문화사적 가치 돋보이는 책
불교의 영산, 금강산! 아쉽게도 승려가 쓴 여행기는 거의 남지 않는 상황에서 청운(淸雲) 이면신(李勉信)의 《봉래일기(蓬萊日記)》가 새롭게 발굴·번역되었다. 이 책에 기록된 승려로서 저자의 행적과 여정은 불교문화사적 연구 사료로 이목을 잡기에 충분하다. 또 이 책에 게재된 석왕사·장안사·표훈사·정양사·유점사·신계사·건봉사 등의 사찰 배치도에는 전각·당우의 수와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어, 당시 사찰의 실제 모습을 유추하고 사찰 복원 자료로도 이용할 수 있는 점에서 실증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면신 지음 | 이대형·이석환·하정수 옮김 | 200쪽 | 값 19,000원

인간, 석가모니를 만나다
내가 본 석가모니불의 발자취
인간으로 오신 석가모니부처님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셨을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면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다 가신 석가모니불! 1986년 인도 쿠시나가라의 열반상을 처음 친견하며 품었던 저자의 생각이다. 그래서 저자는 인도 곳곳에 남아 있는 부처님의 유적지를 돌아보며 웅장했을 옛 건축의 풍광을 상상하기 보다는 중생 교화의 참모습을 되새기고, 동시대 불교인의 실천을 강조한다. 부처님의 일대기에 관한 저술은 많지만, 검소한 생활과 부지런한 습관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성찰의 여정이라는 점이 다른 '부처님의 일대기'와 비교해 돋보인다.
최종웅(혜정) 지음 | 364쪽 | 값 20,000원





유식, 마음을 읽다
언어에 대한 인식적-문화적 해석
수행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반추해보는 책
개인적인 수행자의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해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사회 속에서 타인과 소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에 주목하고, 유식학 문헌을 분석하고 종교언어이론의 관점에서 '마음 읽기'를 시도한다.
안환기 지음 | 272쪽 | 값 18,000원



폐불훼석과 근대불교학의 성립
근대 초기 일본불교 재활 연구
근대 일본불교가 폐불훼석을 딛고 일어서기까지에 대한 고찰
근대 일본불교가 불교학 연구에 힘쓴 여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광풍처럼 몰아치던 탄압 속에서 일본불교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한편 저자는 침략 정책에 부응해 제국주의 첨병으로 전락했던 근대 일본불교에 대한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이태승 지음 | 400쪽 | 값 18,000원



사찰경영, 부처님 법대로 하면 잘된다
사찰경영·종무행정 전문가의 현실적 사찰경영전략 안내서
사찰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생존과 지계(持戒) 사이에서 외줄타기 하는 동시대 한국불교의 힘겨운 상황을 분석하고, 재화·인사·포교·스님·사찰·종단 등 여섯 가지 분야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으면서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경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조기룡 지음 | 260쪽 | 값 20,000원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연구동 201호 olivegreen_p@naver.com 070-7574-8991 0505-116-8991 올리브그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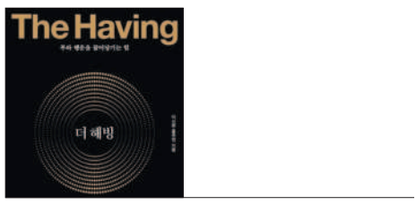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13~5/1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2	요가 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3	밀린다왕의 물음 (수인총서2)	서정형	공감과소통
4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청우당
5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6	숫타니파타 (빠알리대장경 / 쿳다까니까야)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7	염불하여 왕생하고 왕생하여 성불하세 (순수한정토법문)	혜정 / 정전, 원왕생	운주사
8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 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원빈스님	이층버스
9	한글 법보 염불집 : 삶속에서 독송해야 할 보배로운 가르침	원순스님	법공양
10	허공에 핀 꽃	원산스님	효림

책세상

부자가 되는 길, 답은 'Having'



더 해빙

이서윤 · 홍주연 지음/ 수오서재 펴냄/ 1만6천원

한국 최초 펭귄랜덤하우스 선출간
미국 등 전 세계 21개국 판권 계약
수만 건 사례 직접 분석한 결과와
양자물리학 등 다양한 학문 동원
부자 되는 간단 · 효율 방법 소개
오랫동안 한국 경제계 리더 자문
'Having 노트' 등 실용적 팁 소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 "답은 Having이죠."

책 〈더 해빙〉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책으로, '부(富)'의 새로운 개념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적고 있다.

미국에서 먼저 출간된 책의 키워드는 'Having(해빙)'이다. 책이 말하는 'Having'은 '(가지고)있음'으로, 곧 '있음에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있음'에 집중하는 것에서 '부(富)'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책은 저자 이서윤이 수만 건의 사례를 직접 분석한 결과와 동서양의 고전 및 심리학, 양자물리학과 뇌과학 등을 넘나드는 설명으로 독자들을 부와 행운의 세계로 안내한다. 자신의 감정을 활용해 쉽고 빠르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책은 자신을 괴롭히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책은 전직 기자인 홍주연이 행운의 구루로 불리는 이서윤을 찾아가 듣게 된 부와 행운에 대한 이야기를 대화 형식으로 엮었다. 행복한 부자,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이서윤은 쉽고 빠르게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소개한다.

"Having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지요?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Having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책은 각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시작한다. 돈을 지불하고 가지게 된 그것들에 대해 새롭고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어떻게 그것들을 가지게 됐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다. '없음'이 아닌 '있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책이 말하는 Having이다. 현재 가지고 '있음'에 집중하는 순간, 삶은 달라진다.

"몇 주가 흘러갔다. 비 오는 날 아침, Having을 시작한 이래 나는 가열차게 연습을 계속하고 있었다. 사실 Having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돈을 쓰는 그 순간 '있음'을 느끼기만 하면 되었다. **〈중략〉** 물론 Having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가끔 작은 위기들도 있었다."

이서윤의 가르침을 따라 Having을 실천한 홍주연에게는 예상치 못한 행운들이 찾아왔고, 건강한 소비 패턴, 재산의 증가라는 변화가 생겼으며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 한 발 더 나아가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막연한 불안감에서 해방되며 진정한 편안함에 머물게 됐다.

'부(富)로 가는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오늘날,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통계청 조사 결과 한국인 10명 중 6.5명은 "노력만으로 계층 상승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더 비관적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4.4%)이 자식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더욱이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예상치 못한 질병의 확산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수저론'이 대세를 이루는 이 시대에 자신의 힘으로 부를 이루는 것은 가능한 걸까? 우리를 짓누르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현재를 희생하지 않고 행복한 부자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대기업 창업주와 주요 경영인, 대형 투자자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찾는 사람, 이서윤. 그들은 그녀에게 자문을 구한 뒤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는 인생의 퀀텀 점프를 이루어냈다. 상위 0.01%가 찾는 행운의 여신이자 미국과 유럽 독자들이 열광하는 이서윤은 물려받은 재산이나 뛰어난 학벌, 남다른 재능이 없어도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부와 행운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일곱 살에 운명학에 입문해 동서양의 고전을 마스터하고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경제계 리더들을 자문해온 그녀가 알려주는 방법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Having'이다.

책은 평범한 한 사람이 Having을 배우고 실행한 뒤,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만나게 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소개한다.

책을 읽고 'Having 노트', 'Having 모션' 등 실용적인 팁들을 따라 하다 보면 누구나 행운의 물결을 타고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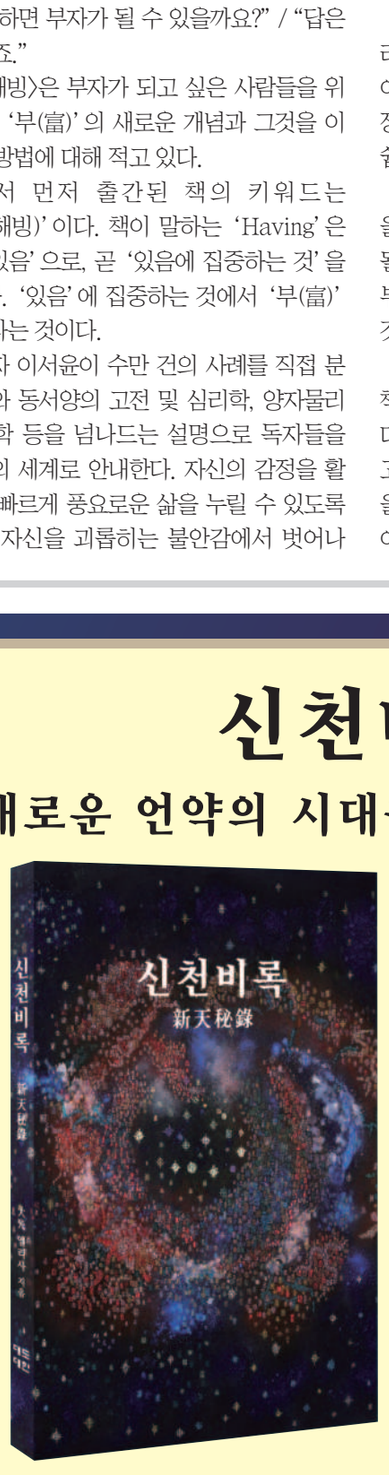
미국과 유럽의 독자들로부터 '불안감이 사라지게 해준 책', '행운의 바이블', '매일 아침마다 읽는 책'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책 '더 해빙'은 국내 최초로 세계 1위 출판사인 펭귄랜덤하우스에 의해 미국에서 선출간됐다. 책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 모두 21개국에 판권이 팔리며 한국 자기계발서 가운데 최초로 서구시장에 진입했다.

△저자 이서윤은 사주와 관상에 능했던 할머니의 발견으로 일곱 살 때 운명학에 입문했다. 주역과 명리학, 자미두수, 점성학 등 동서양의 운명학을 빠짐없이 익혔고, 10만 건의 사례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고등학생 때부터 자신을 찾아오는 부자들의 자문에 응했고 이후 연세대 경영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미국과 유럽 등지를 오가며 세계 각지의 운명학 대가들과 교류했다. 그녀에게 자문을 구하는 이들은 대기업의 오너와 주요 경영인, 대형 투자자 등 상위 0.01%에 해당하는 부자들이다. 그들은 이서윤의 조언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거나 조직의 인사를 단행하고 투자를 결정했다. 개명 전 이름은 이정일. 저술한 책으로는 〈오래된 비밀〉, 〈운, 준비하는 미래〉 등이 있다.

△저자 홍주연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사회부와 산업부 등에서 10년 가까이 기자로 일했다. 2008년 기자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MBA)를 받았다. 경영컨설팅 회사 맥킨지앤컴퍼니에서 대외협력 담당 이사로 근무했다. 기자로 일하던 시기에 이서윤을 만났으며, 10여 년 후 기적적으로 다시 만나 그녀로부터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Having'을 배우고 실천한 뒤 이 책을 함께 집필했다.

신천비록 新天秘錄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열어줄, 새 하늘 비밀의 서



처음 하늘이 열린 태천부터
암흑기인 선천의 시대를 지나,
지금 새로운 후천시대에 이르기까지
대우주 하늘의 역사를 밝히고,
사후세계, 사람의 운명,
후천의 신앙과 도, 이기는 자,
천년왕국의 비밀을 알리다.

대광 엘리사 지음 / 도서 정가 15,000원
도서구입 문의 (도서출판 대도대한 : 063-643-7285)

인터넷서점(교보문고 / 영풍문고 / 반디앤루니스 / 알라딘 / 예스24) 교보문고 각 지점, 영풍문고 각 지점, 반디앤루니스 각 지점, 리브로 각 지점 서울종로)대원서적, 서울은평)불광문고, 서울서대문)홍익문고, 서울강서)행복한글간, 구리)동원서적, 수원)녹산문고, 수원)율전문고, 원주)동아서관, 춘천)춘천문고 춘천)광장서적, 천안)열린문고, 충주)문학사, 청주)홍문당, 대전)보문불교, 대전)계룡문고, 대전)중앙출판, 대구)세원출판, 대구)에스디커뮤니, 울산)처용서림 부산)영광도서, 부산)목민서관, 구미)춘양당, 안동)교학사, 창원)창원서적, 김해)가야서점, 마산)대신서점, 진주)진주문고, 광주)충장서림, 전주)홍지서림, 전주)웅진서적, 전주)민중서관, 군산)군일서점, 익산)대한서림, 순천)중앙서점, 목포)국제서림, 제주)탐라도서 등 전국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종교상담사 자격 교육

귀장술비법

찾아온 (시간 · 일진)으로 왜 왔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방자의 사주만 가지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육임보다 쉽고 더 확실한 점술학...
(명리학을 잘 몰라도 됩니다)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선착순 30명 접수 ☆ 강사 : 도호스님

3개월완성으로 상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강특전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과 수료증 수여 (총장 명의)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문의안내 02)741-0495~6

베트남 종교계, 코로나 피해 위로 · 화합

가톨릭 종교인들,
베삭데이 앞두고
불교 장애센터 방문
코로나19 피해 위로

박정현 객원기자


불교계 장애아동시설에 방문한 카톨릭 종교인들. 사진출처=카톨릭아시안뉴스연합

"우리 센터에 신부님들이 방문해줘서 너무 기뻐요."

베트남 종교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들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베삭데이를 앞둔 시기, 불교계가 운영하는 장애아동돌봄센터에 가톨릭 신부들이 방문,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이웃 종교 간 화합의 장을 열었다.

지난 5월 12일(현지시간) 베트남 중부 후(Hue) 도시에 위치한 불교계 장애아동 돌봄 센터 '롱소(Long Tho)'에 가톨릭 신부와 자원봉사자 등 10여 명이 방문해, 자폐증,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청각장애 등을 앓고 있는 장애 아동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함께했다고 가톨릭 아시안 뉴스 연합(Union of Catholic Asian News)이 13일 보도했다. 종교인들은 이날 롱소에서 생활하는 장애 아동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전통 놀이 등을 함께 하며 행복한 시간을 선사했다.

두 종교 간 이번 만남은 남방불교의 최대 행사인 '베삭 데이'를 기념한 것이다. 베트남 불교계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오프라인 베삭 데이 행사를 대거 취소했다.

롱소의 틱 누 톼이 응힘(Thich Nu Thoai Nghiem) 비구니 스님은 "센터는 주로 지역 후원자들과 관광객들의 보시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겨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가운데 센터를 방문해 준 가톨릭 신자들에게 감사한다. 선물에 크게 감동했다"고 반가워했다.

후 시내에 위치한 성심성결교회의 조셉 판 탄 호(Joseph Phan Tan Ho) 신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사람들에게 성인(聖人)들의 사랑을 나눠주고, 아이들을 돌보는 비구니 스님들과 함께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우리는 여름 기간과 각 종교의 중요한 행사 때 서로를 방문하고 돕는 활동을 해왔다"고 했다.

이웃 종교인들의 방문에 장애 아동들도 즐거워했다.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응옌 반 미(Nguyen Van My, 16) 아동은 "네 식구인 우리 가족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아빠는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면서 매일 출근 전 나를 센터에 등원시킨다. 엄마는 왼쪽 다리가 마비된 장애인"이라면서 "신부님들이 센터에 오시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기쁘다"라고 했다.

다낭으로부터 온 후원자 마타 트란 티 호아 톰(Martha Tran Thi Hoa Thom)은 "장애 아동들을 위한 종교 간 화합은 공동 번영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은 교육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웃어보였다.

응힘 스님 등 5명의 비구니 스님들에 의해 2007년 설립된 롱소는 후 도시에서 유일한 불교계 장애 아동 돌봄 센터다. 현재 3명의 비구니 스님과 12명의 교사가 87명의 고아 및 장애 아동들을 보살피고 있다.

가톨릭 아시안 뉴스 연합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베트남 내 장애인들 중 82%가 건강에 대해, 96%가 재정 상태에 대해 걱정했다"며 "재정적 어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각국 불교계, 국제 베삭데이 온라인 봉행

인도네시아 · 싱가포르 등
사회적 거리두기 위해
각국 온라인 활용키로


지난해 보로부두르 사원의 베삭 행렬. 사진출처=자카르타포스트

부처님의 탄생과 깨달음 그리고 열반을 기념하는 국제 베삭데이(International Vesak Day)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화제다. 지난 5월 7일 '자카르타 포스트' '스트레이트 타임즈' 등의 외신은 코로나19 사태로 불교 최대 행사인 베삭축제가 온라인 스트리밍 등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국제 베삭데이는 세계각국의 달력에 따라 달리 전하는 부처님오신날을 공동으로 기념하기 위해 1999년에 UN에서 정한 봉축일로 매년 5월 보름에 해당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5월 7일 국제 베삭데이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진행됐다.

먼저 '자카르타 포스트'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베삭 기념행사를 전했다. 인도네시아의 불교공동체 위원회는 "공간적 특성상 각 사찰에서의 봉축행사를 금지하고, 각 가정에서 예불을 드리는 것으로 국제 베삭데이를 기념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봉축행사는 인도네시아 불교 의례에 따라 중계됐다.

온라인 봉축예불을 참여한 한 대학생은 "올해 처음으로 베삭축제에 참여하지 못했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축하하는 게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불교공동체 위원회의 드라고노 교수는 "비록 베삭축제가 가상화 됐지만 불교도로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베삭의 의미는 그대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었지만 실제로는 장소와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평했다.

싱가포르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령이 6월 1일까지 연장되면서 베삭축제가 취소됐다. 싱가포르는 이에 '스트레이트 타임즈'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베삭 기념행사를 보도했다. 기념행사에서 싱가폴 정부는 "불교의 가르침인 자비, 이해, 회복은 감염병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바이러스의 조기 종식을 도와줄 것"이라고 공식 봉축메세지를 발표했다. 또한 봉축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싱가포르 불교포교단(Singapore Buddhist Mission)은 국제 온라인 콘서트를 열었다. 봉축을 주제로 한 이 온라인 콘서트엔 싱가포르와 해외 불교음악가들이 참여했다.

페이스북으로 진행된 베삭 기념행사에 참여한 14세의 학생은 "베삭축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 실망스러웠다.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법문은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함을 느낀다.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스리랑카 '유씨에이 뉴스' 역시 스리랑카 각지의 베삭행사가 취소 됐다고 전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에서 예정됐던 베삭행사를 중지했으며, 베삭데이 당일에는 사찰 인근에 거주하는 소수의 불자들만이 사찰을 찾았다. 취소된 행사를 대신해 스리랑카 사찰들은 온라인을 통해 베삭기념 행사를 중계했다.

또 베삭데이를 기념하여 스리랑카 스님들은 그동안 지역과 가정에서 파손된 채 방치 되어있던 불상들을 수습해 다비하는 의식을 봉행했다. 파손된 불상들은 스리랑카 남부의 보디라자(Bodhiraja) 사원에서 백단향 나무로 다비됐다.

김민재 객원기자

캄보디아 · 태국, 불교행사 전면 중단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예불 · 법회 등 취소 이어져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전을 염송하는 캄보디아 스님들. 사진출처=더스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동남아 각국의 불교행사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말레이시아의 온라인 매체 '더스타 닷컴'은 캄보디아와 태국의 현지보도를 인용해 안타까운 상황을 보도했다.

먼저 태국 방콕의 랏프라오(Ladprao) 사원에 상주하는 프라 수라삭 슈딴토(Phra Surasak Suthanto)스님은 "사찰의 예불과 다양한 행사는 무기한 연기가 되고 있다. 보시를 하기 위해 사찰을 찾는 신자들의 수가 급감했다. 현재 스님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스님은 "생활에 필수적인 탁발마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아침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1~2미터의 거리를 두고서 불자들과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라삭 스님은 "현재 사찰에서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의례는 장례식이다. 며칠에 걸쳐 장례식이 이루어지지만 현재는 기간을 단축해 진행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태국은 정부 차원에서 4월 중순부터 새해 행사인 송크란 축제를 취소했고, 불특정 다수의 집단이 모이는 행사를 전면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제 베삭데이를 앞두고 태국 정부는 시민들에게 사원 방문을 자제하고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봉축행사에 참여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각 사찰들은 정부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수백 명의 스님들과 불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찰을 방문해 베삭데이를 기념했다. 프놈펜에 소재한 왓 오우날롬(Wat Ounalom)사원의 주지스님은 "지난 4월부터 신도들에게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라고 교육했다. 베삭데이 당일엔 100명 이상의 신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원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정부 문화 · 종교부 대변인은 "출입객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찰을 방문할 수 있었지만 방문객과의 거리를 최소 2미터 유지했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참배객들은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귀가했다"고 밝혀 이동범위가 최소화 됐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태국, 자비 베푼 남성 스님에게 총격

쉴곳 · 음식 제공했으나
술 버릇 꾸짖자 스님 살해


태국에서 스님이 살해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출처 CTN.

태국에서 스님이 살해를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스님이 술에 취한 시민을 비난하자, 총으로 스님을 쏜 것이다.

태국 언론 CTN뉴스의 5월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44세의 남성 사콜 폼통(Skol Pumthong)은 이날 태국 북부 람팡(Lampang) 주(州)의 한 숲에서 스님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피해자는 69세의 프라 번드힛 프롬엄(Phra Bundhit Prom-iam) 스님이다. 스님의 시신은 지난 9일(현지시간) 람팡에 있는 솝 모(Sop Moh) 마을 인근 숲에 정차된 트럭에서 마을 사람들에 의해 발견됐다. 총으로 머리를 관통당해 숨진 상태였으며, 심각하게 부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건 현장 주변을 탐색하던 경찰은 숲 인근에 숨어 있던 사콜을 수상하게 생각해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스님이 술을 마시는 것을 비난해 총으로 쐈다고 범인이 자백했다"며 "범인은 스님이 트럭에 타기를 기다렸다가 총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스님이 생전 그에게 쉴 곳과 음식을 제공했던 점이다. 사콜이 알콜 중독을 이유로 아내에게 쫓겨나 숲으로 오자, 스님은 약 열흘 간 오두막에서 그를 머물게 하고 음식, 물 등을 제공했다. 사콜은 "스님이 술버릇에 대해 꾸짖어서 홧김에 총으로 쐈다"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육조 두개골 탈취… 韓中불교 비사



이상근의
聖寶流轉

⑩ 육조정상탑



쌍계사 금당 전경. 안에 부처님이 아닌 탑이 모셔져 있는 것이 보인다. 현판에도 보이듯 육조정상탑으로 신라 스님이 육조 혜능의 두개골을 탈취해 모셨다는 연기설화가 있다. 하지만 육조 혜능 두개골은 탑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다.



쌍계사 금당 내 조성된 육조정상탑. 육조 혜능 두개골 탈취 설화는 〈육조단경〉의 육조 혜능의 예언에 기반해 한국불교만의 스토리텔링이 가미돼 나온 결과물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사찰의 축선이 두 곳이 된 곳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하동 쌍계사를 들 수 있다. 쌍계사의 경우는 좁은 공간 탓에 중창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축선이 두 개가 됐다. 동서의 축선을 가진 대웅전 영역과 남북의 축선을 가진 금당 영역으로 나뉜다. 금당 영역의 중심 법당은 역시 금당(金堂)이다. 하지만 일반인은 금당에 아무 때나 출입할 수 없다. 선원이 있기 때문이다. 동안거 3개월, 하안거 3개월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근다.

이 같은 금당 자리는 옛부터 '설리갈화지지(雪裏葛花之地)' 라고 했다. 아주 양지바른 곳이라 한겨울 눈 속에도 칡꽃이 피는 곳이다. 아주 길상한 땅이라는 뜻이다. 봄바람이 찬 이른 아침에 쌍계사에 가보면 다른 전각의 문들은 꼭꼭 닫혀 있어도 금당 출입문만은 활짝 열려 있는 걸 볼 수 있다. 햇빛도 잘 들어오고 바람도 잘 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터만큼이나 금당이 갖고 있는 사연이 흥미롭다. 중국 불교 선종의 6대조인 혜능 선사의 두개골을 모셨다는 육조정상탑이 법당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탑을 법당 안에 배치한 것도 흥미롭고 그 탑 안에 육조 혜능의 두개골이 모셔졌다는 이야기도 흥미롭다.

육조정상탑 이야기는 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 혜능 스님이 입적하고 얼마 뒤 신라 스님이 중국에 건너가 혜능 스님의 머리를 탈취해 우리나라로 돌아와 모셨다는 것이다. 조금 엽기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은 아니다' 이다. 실제 광둥성 남화선사에는 혜능 선사의 등신불이 지금도 온전히 모셔져 있다. 물론 머리 부분도 별다른 이상은 없다. 관련 문헌을 검토한 학자들 역시 일관되게 육조정상탑에 '혜능의 두개골은 없다' 고 결론을 내린다. 나 역시 이런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과는 별개로 혜능으로 대표되는 선종이 이 땅에 법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도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싶었던 한반도 수행자들의 그 갸륵한 마음은 또 한 켠으로 인정해야 한다.

혜능의 예언

이야기의 출발은 〈육조단경〉이다. 자신의 열반을 알리는 법문 중에 대중이 육조 스님에게 묻는다.

대중: 뒷날 스님 때문에 무슨 변란이 없겠습니까?

육조: 내가 열반 한 뒤 5, 6년이 지나 한 사람이 내 머리를 가지러 올 것이다.

이어 다음과 같은 말이 이어진다. "정만이가 밥을 구하기 위해 육조 목을 팔려했지만 관리 양간 유무첨이 해결을 한다."

〈육조단경〉은 혜능 스님의 말년 법문 모음집이다. 그런데 그 말미에 혜능 스님은 '예언' 을 하나 한다. 내가 죽은 뒤 누군가 나의 머리를 가지러 올 것이라는 것이다.(이 대목은 돈황본 등에는 없고 덕이본 등에 나온다.)

예언이 맞은 것인지 아니면 말이 씨가 된 것인지 실제 육조 혜능 머리 강탈 사건이 벌어진다.

〈육조단경〉의 후기에는 탑을 지키던 영도 스님이 쓴 글도 실려 있다. 이야기의 전말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대사께서 열반에 드신 후 개원십년 임술 팔월 초사흘에 이르러 한밤중에 홀연 탑 속에서 쇠줄 써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대중들이 놀라 잠자리에서 쫓아가 보니 상복 차림을 한 사람이 탑 속에서 나와 도망을 갔다."

그렇다면 정말 혜능 스님의 머리는 도난을 당했을까? 영도 스님의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탑 속을 살펴보니 대사의 목에 상처가 있어서 이 사실을 고을 관아에 알렸다. 관리 양간과 자사 유무첨이 통보를 받고 그 도적을 잡으려 노력한 지 닷새째에 석각촌에서 체포하고 소주에서 심문을 하였다. 도적의 이름은 장정만으로 여주 양현 사람이었다. 그는 홍주 개원사에서 신라 승려 김대비에게 돈 20천(2만) 냥을 받고 육조 스님의 머리를 취해 해동으로 모시고 돌아가 공양하려 했다는 것이다."

쌍계사 금당 內 조성된 육조정상탑
혜능 두개골 탈취 · 봉안 설화 전해
결론적으로 탑엔 육조 두개골 없어

〈육조단경〉 나온 혜능 예언 기반한
한국불교만의 연기설화 스토리텔링

혜능 스님은 714년 전후에 열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도 스님이 말한 개원십년(開元十年)은 722년이다. 혜능 스님이 말한 5~6년에서는 조금의 시차가 있다. 여하튼 〈육조단경〉 덕이본 후기에서는 이 사건이 '미수' 에 그쳤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이 일은 실제 벌어졌던 것이 확실하다. 〈육조단경〉 외에도 이 '사건' 을 기록한 기록은 더 있다. 801년 간행된 〈보림전〉에도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다만 〈보림전〉은 유실됐는데 〈보림전〉을 인용한 송나라 시대 〈조정사원(祖廷事苑)〉에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런데 이 '역사' 를 다르게 기록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해동(海東)의 사람들이다.

다르게 기록하고 싶은 사람들

우선 탈취 사건의 주모자와 공모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육조단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일의 총기획자는 신라의 삼법 스님이다. 기록에 따르면 삼법 스님은 혜능 스님이 입적했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해 하던 차에 규창(圭晶)이라는 스님이 당나라로부터 가지고 온 〈육조단경〉 초본을 보게 된다. 그리고 무릎을 쳤다. "내가 입적한 후 5, 6년 뒤에 어떤 사람이 나의 머리를 탈취해 갈 것이다"라는 기록을 본 것이다.

당나라까지 가서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다. 영묘사(靈妙寺)의 비구니 법정(法淨) 스님을 찾아간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법정 스님은 출가 전 김유신 장군의 부인이었던 지소(智炤)였다. 김유신 장군이 죽자 출가한 것이다. 충분히 자금을 댈 만한 여력이 있었을 것이다. 삼법 스님이 법정 스님에게 받은 돈은 2만금이었다.

그 후 상선을 통해 당나라로 건너간 삼법 스님은 백방으로 궁리를 했지만 스스로 일을 마무리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던 중에 백률사 스님인 대비(大悲) 선사가 마침 홍주 개원사 보현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비 선사 역시 삼법 스님의 계획에 동조하고 당시 절에 살던 장정만(張淨滿)이라는 사람을 섭외한다. 법정 스님에게 받은 2만금이 장정만에게 전달됐다.

여기까지는 중국 측 기록과 우리 기록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수에 그쳤다는 중국 측 기록과 달리 각훈 스님이 썼다는 '동래연기' , 최치원이 쓴 쌍계사 진감 선사 비문 등은 미수가 아니라 '성공' 으로 기록하고 있다. 종합하면 '거사에 성공한 후 항주에서 배를 이용하여 신라로 돌아왔다' 는 것이다.

물론 곁가지 얘기가 더 있다. 각훈 스님의 동래연기에는 1차 시도는 김대비 스님이었으며 삼법 스님이 다시 김대비 스님과 협력해 2차 시도를 했고 2차 계획이 성공했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학자들은 각훈 스님이 썼다는 '선종육조혜능대사정상동래연기(禪宗六祖慧能大師頂相東來緣起)' 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다. 1차 사료가 문제가 있으니 이후 '동래연기' 를 토대로 썼던 글들 역시 신뢰할 수 없다.

무엇보다 지금도 육조 혜능의 진신이 훼손되지 않고 전해져오는 것이 '계획' 이 성공하지 않았다는 걸 방증한다.

하지만 물 한 잔도 진심이 있다면 성스러워지는 것이고 돌 하나도 닦고 다듬고 기도하면 성보가 되는 것이 이치다. 1000년 넘게 갈고 닦아온 한국불교사 최고의 스토리텔링에 역사적 사실을 들이대며 참배하지 않을 일이 없다. 게다가 엽기 탈취 사건이라니 흥미롭지 아니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육조정상탑은 아무 때나 볼 수 없다. 그런데 올해는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윤4월 8일(양력 5월 30일)로 옮겨지면서 하안거 역시 한달 늦은 윤 4월 15일(양력 6월 6일)로 미뤄졌다. 덕분에 육조정상탑이 있는 쌍계사 금당을 참배할 기회가 자연스레 늘어났다. 독자들에게 어서 가서 참배하라고 재촉하고 싶은 마음에 흔하고 묵은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상담(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우리 법당 시설은 아직 쓸만해! ....

수 없이 겪는 현장이지만 이런 말씀하시는 스님들과 본사 염불 견본과 법당서 소리 비교시! 장난감 수준의 차이를 보며 스님들의 방송수준의 한계를 보는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 본사의 염불전문 시스템이 어느 경지에 올랐고 일반시설과의 수준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시설전 반드시! 비교 확인 하셔서 평생 수 천번 사용하는 염불시설의 낭패를 면하시기 바랍니다

▣ 본사는 서울서 김해로 사업체를 옮긴 후 중·저음 사운드 시설로 염불이 편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신흥사, 범어사, 남해의 토굴까지 일천여 시설을 한 베테랑 업체입니다.

▣ 장점 : 앰프다루기 1초! 간결한 제품으로 고장이 없음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증류별 4개,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 카드가능)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 **구경 조건으로 신청**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발성법 강사 박 공 희
방문시 스님 발성교정 가능

우리 주변 부처님 탄생 기다리며



변택주의
다시 읽는 法頂 스님
⑩ 법정 스님과 부처님오신날



법정 스님의 유품사진. 평소 법정 스님이 '자비'와 못지 않게 즐겨 쓴 말이 '행하라'였다. 자비를 실천하는 이가 바로 부처다.

"저거 왜 달았어?"

"모르겠습니다." "떼어요."

"스님들이 붙이신 걸 제가 어찌 떼겠습니까?"

199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길상사에 오신 법정 스님과 한 거사가 극락전 앞 처마에 걸린 커다란 연등에 달린 '법정 대화상'이라는 꼬리표를 보며 나눈 말이다. 스승은 거사가 하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그 꼬리표를 떼어냈다. 등에 이름표를 다는 것을 못마땅했을 뿐 아니라 세상에 큰 스님, 작은 스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던 어른이었으니 '대화상'이라는 말도 거슬렸을 터이다.

이보다 세 해 전,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BTN 대담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

"일부 절에서 얼마짜리 등이라고 하는 게 영 거슬리거든요. 또 누구를 보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름표를 다는 것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등 값을 매길 것 없이 제 힘닿는 대로 정성껏 동참금 내고 아무 등이나 달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알 수 없으나 스승이 살아계실 때 길상사에서는 등값을 매기지 않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형편 닿는 대로 돈을 내고 연등을 달도록 했다.

어느 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부산에 사는 불자가 스승에게 알리지도 않고 등을 잔뜩 접수하여 불일암으로 올라왔다. 스승은 나는 준비도 없고 내 성미로 보아 불 밝힐 까닭도 없으니 큰 절에 가서 밝히라고 말씀한다. 그러나 그이는 모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뜻을 모아 왔으니 꼭 불일암에서 연등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빈다.

스승은 "마침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어떤 잡지 별책 부록이 나와 있다. 그 책을 사서 교도소나 군대에 보내면 불일암에 불 밝히기보다 훨씬 나은 공덕일 것"이라며 일깨워 책을 사서 나누도록 한다.

이와 같은 뜻을 이어받아, 길상사에 다니는 이들은 식구들 안녕을 비는 연등과 어려운 이웃을 아우르는 연등을 나란히 달았다. 어떤 해에는 결식이웃을 아우르는 등을 하나 더 달고, 다른 해에는 탈북주민을 품는 등을 달며,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2003년에는 이라크 어린이를 품는 등을 달고, 이듬해에는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에는 나서는 장애인에게 힘을 보태는 등을 달았으며, 그다음 해엔 사랑하고 화합하는 등을 달아 모은 돈을 가톨릭 단체 성가정입양원에 내놓는 것처럼, 해마다 알맞은 주제를 골라 이웃을 아우르는 등을 달곤 했다.

우리가 바로 부처님 화신

스승은 1993년 어느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로 볼 때는 부처님 오시는 날이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인류 스승으로서 이분이 남긴 말 가운데서 마지막 유언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고 말씀하면서 덧붙이기를 '제게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하라. 저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으라' 고 하셨다. 제게 의지하라는 것은 성내고 욕심부리고 꽉 막혀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일상에서 부대끼는 자기가 아니라 본질인 자아에 의지하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지할 것이 많지만 다른 것은 허망하니 진리에 의지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스승은 또 "그래서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다. 우주 신비와 인과 법칙을 깨달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우리 스스로 부처가 되라는 교훈이다. 그러니 혼란된 사회 안에서 불자들이 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2,500년 전에 지나가 버린 부처님이 아니라 저마다 제 부처님이 오시는 날이 되지 않겠는가' 는 의미로 오늘을 축하해야지, 등이나 켜고 제등 행렬이나 하고 어디서 불공이나 하고 기도나 하는 걸로 마친다고 한다면 부처님 오시는 날이 아니고 이미 오신 날로 그치고 말 것"이라고 흔든다.

1999년 여름 안거를 푸는 날인 우란분절에는 "진정한 재는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스님에게 공양하면 공덕이 크다는 까닭은 수행자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특히 인도 같은 데서는 수행자들이 거의 걸식을 하므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면 공덕이 된다는 뜻이다. 굶주리는 이웃을 보살피는 일, 이것이 진정한 재"라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법다운 공양을 하면 그것이 곧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라고 짚어준다.

> **'부처님 오시는 날' 말씀**
> **주변이웃 살피길 강조해**
> **자비실천 이어지는 사회**
> **진정한 봉축의미 아닐까**

2003년 부처님오신날에도 "아름다운 세상이란 이렇게 연등을 잔뜩 걸어놓고, 꽃이 만발하는 세상이 아니다. 사람들이 서로 믿고 도우며 인정이 넘치는 곳이 아름다운 세상이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뜻 도울 때 덕이 자란다"라고 하면서 "남을 도울 때 제 생각대로만 해서는 안 되며, 상대편 자존심과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일깨운다. 이어 "남을 돕는 일에 어떤 보상이 따른다면, 그 보상이란 곧 내 가슴이 그만큼 따뜻해지는 일일 것이다. 그만큼 시야가 넓어지고 사는 의미가 그만큼 깊어진다. 오늘이 부처님오신날이라고 한다. 부처님이 오신다니 어디서 왔으며 무엇 하러 왔는가? 저마다 한번 생각해보라. 부처님과 우리를 별개로 보지 말라. 우리가 그런 도리를 가르친, 그 부처님 화신이다. 우리는 저마다 그런 부처님이다. 이웃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가질 때, 그 자리에 자비로운 부처님이 오신다. 또 부처님오신날이 오늘 하루로 그친다면 생일잔치를 하고 마는 것과 같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모든 불자는, 언제 어디서나 서 있는 그 자리에 부처님이 오시도록 마음에 새겨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 어떤 특정한 날에만 부처님이 오신다면 대단한 일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든 부처님이 오셔야 한다"하고 흔들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 라는 속담을 뒤집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승 말씀을 뱁새와 함께 가는 황새는 뱁새 가랑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보폭을 뱁새에 맞춰 걸어야 하며, 제가 밥 먹을 때 뱁새와 같이 먹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새겼다.

2004년 부처님오신날에도 "부처라는 말은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이다. 누구든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살아 있는 부처를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어떤 특정한 인물만을 부처로 떠받들려고 하기 때문에 스치고 지나간다. 부처를 어떤 특정 인물로 고정하면 살아 있는 참 부처를 놓치고 만다. 그러니 자비심이 곧 부처이고 보살이라는 말을 깊이깊이 새기"라고 말씀한다. 2007년에도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누구나 부처 씨앗을, 깨달음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것이 활짝 열리면 저마다 부처다.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 내 안에 있는 불성을 일깨우고 꽃피워야 한다. 저마다 사는 그곳에서 이 시대 부처가 되어 한몫씩 하기 바란다."라고 거듭 흔들었다.

2008년 부처님오신날 법석에서는 "이 세상은 사람만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식물과 동물이 없다면 사람도 살아갈 수 없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동이를 보호하듯이 모든 살아 있는 것에게 한량없는 자비심을 드러내라"라는 부처님 말씀을 새겨주면서 "삶이 곧 수행이 되어야 한다. 사랑을 펼치면서 거듭거듭 성숙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혜와 용기가 생겨서 휩쓸리지 않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마쳤다.

부처는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

사실 스승은 오래전부터 부처님오신날은 새로운 부처님이 오시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다. 1970년에 남긴 '오시는 날' 이란 제목이 달린 글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는 것은 그가 몸소 보였던 대비원력이 오늘 우리 것으로 분화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설사 등불 억만 개를 대낮같이 밝힌다 할지라도, 사람 세계는 암흑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오신날' 은 마땅히 새 부처님이 '오시는 날' 을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이다.(영혼의 모음)"

같은 책 '부처님오신날에 부치는 글' 에서도 "불자들은 이 시대에 태어난 부처님 화신임을 자각, 스승이 품은 대비원력이 곧 내 원력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1971)"이라고 말씀한다.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하는 꼭지에서도 "지혜롭게 살려는 사람은 먼저 자비의 화신이 되어야 한다. 자비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다. 일상에서 가까운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베푸는 따뜻한 손길이다. 그이에게는 일체가 자기 세계요 분신이므로 따로 욕심부릴 것이 없다. 나는 이웃과 본질로 맺어진 것임을 알기에 남의 일이 곧 내 일(1971)"이라고 일깨웠다.

일상에서 부처님이 오시도록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열차는 죽전역까지만 가는 열차입니다. 수원 쪽으로 가실 분들은 이곳 오리역에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죽전역은 지상이어서 몹시 춥습니다."

세 해 전 12월, 기온이 영하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 밤 열 시쯤 오리역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막 떠나려던 분당선 전동차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다. 열차를 갈아가고 다섯 정거장을 더 가야 했던 나는 서둘러 내렸다.

그보다 세 해 전 12월, 용산역에서 덕소로 가는 경의 중앙선 전철에 오른 시각은 10시 42분. 열차가 떠나려면 8분쯤 더 기다려야 하는데 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찬 바람에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든다. 그때 계단 쪽 문만 남기고 나머지 문이 닫힌다. 바로 전철 안이 안온하다. 밀려드는 바람에 잔뜩 웅크린 손님 마음을 헤아린 전동차 기관사가 일으킨 기적이다.

스승이 '사랑' 과 '자비' 란 낱말 못지않게 즐겨 쓴 말이 '행하라' 와 '실천하라' 였다. 이 바탕에서 부처를 한마디로 드러낸다면 '사랑하는 사람' 이다.

〈법정 스님 눈길〉 저자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풍요와 복덕을 얻게하는 귀한 선물
천수경(千手經) 액자
인쇄물이 아니라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모필로 써서 만든 것입니다.
붉은 비단에 금색원형으로 천수경을 적어 조형미와 더불어 품격까지 느껴져
주지스님 방이나 거실, 사무실 벽에 걸어놓기에 안성맞춤입니다.

· 작품크기 : 가로 45cm × 세로 45cm
· 바닥재질 : 비단(한지로 배접)
· 구입대상 : 스님, 신도님
천수경이란
천수경(千手經)은 관세음보살의 6번화신 중 하나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경전이다. 천수다라니는 특히 티벳과, 네팔, 인도,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에 걸쳐 여러가지 이본(異本)들이 있는데 그 체제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다라니의 내용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송되고 있는 천수경은 가범달마(伽梵達摩)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모태로 한 것인데 우리말로 풀어쓰면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경인데 천수다라니를 정성드려 모시거나 수지 독송하고 지키면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일체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악업과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케하며 일체의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모든 병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일체의 귀신이 범접치 못하게 하고 모든일을 성취케하며 구하는 바를 만족케하고 특히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수명이 장수하고 풍요와 복덕을 얻게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천수다라니에는 온갖 공덕이 들어있어 그 대비신력과 위신력의 영험은 한없이 높고 그 신묘함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여 신묘장구 대다라니라 한다.
문의 055-291-7263, 010-3845-2446 (금액협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번길 37-15호 도덕정사

전통예술 | 자체제작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법고
법당천도법고
태 징
목 어
서 울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1길 12
02)3673-3442,764-2159
010-5264-3906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

佛性, 성불의 근원·근거·가능성



현견 스님의
중국 선 문화기행 Ⅱ
⑩ 대승불교시기 불성론 발전과정



그림 · 강병호

불성은 성불의 원인 근거 가능성의 문제이다. 불성에서 '性'의 원문은 '界'이며, '因'이라는 뜻도 있다. 불성의 근원은 '심성본정(心性本淨)', 즉 '성정지심(性淨之心)'의 사상이다. 이러한 것은 일체중생이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불의 가능과 근거가 된다.

불성론은 불교의 인성론이다. 인성론의 탐구는 인간의 본질과 속성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인성은 선인가? 아니면 악인가? 아니면 무기(無記 · 不惡不善)인가 등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 불성론의 관심은 무엇이 불성인지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다. 이후 이러한 문제의식은 사상적으로 성불의 가능성을 지닌 이론으로 발전되었다. 불교는 일체중생이 불성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불성은 성불의 가능성 및 종자, 근원이 된다고 가르친다. 불성은 또한 여래성, 각성, 여래장 등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불성의 본뜻은 깨달음을 이룬 '불타'가 구비하고 있는 본질이자 속성이기도 하다.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생로병사'를 거친다는 것은 조금만 사유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두렵다. 특히 원하던 원하지 않던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다. 이 죽음은 생명과 함께 항상 같은 묶음이다. 즉 빛과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 사람은 누구나 아프거나 늙거나 죽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프고 늙고 죽는 것을 원치 않고,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해탈 성불하라고 불교는 가리킨다. 그러면 영원히 태어남을 반복하지도 아프지도 늙지도 않으며, 죽음이 없는 세계에 정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영원한 이 세계에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곧 성불하는 길이며 곧 불성을 깨닫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의 과정에서 탄생된 것이 바로 불성론이다. 때문에 '일체중생개유불성'이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봉건제도하의 계급사회에서 피지배계급자들에게 더욱더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다.

부처는 다겁생의 수행정진을 통해서 정각을 이루었다. 〈화엄경〉에 보면 '심불급중생시삼무차별(心佛及衆生是三無差別)'이라는 말이 있다. 심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질적인 입장의 이야기이다. 또 불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조금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부처나 중생이나 동일한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중생이고 부처는 왜 부처일까? 라는 의구심을 가져 볼 수 있다. 이 해답으로 경전에서는 부처는 과불성(果佛性 · 佛)이고, 중생은 인불성(因佛性 · 중생)의 상태라고 한다. 사실 여래장과 불성은 또 다른 의미의 이명(異名)이다. 따라서 여래장을 논할 때도 역시 염(染)의 각도에서 여래장은 중생이요. 정(淨)의 각도에서 여래장은 부처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사상적인 논리들이 수립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본연부 경전에 속하는 〈앙굴마라경〉에서 정의된 불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不生이 불성이다, 진실성이 불성이다. 상성(常性)이 불성이다. 항성(恒性)이 불성이다. 불변역성(不變易性)이 불성이다. 적정성(寂靜性)이 불성이다. 불괴성(不壞性), 불파성(不破性)이 불성이다. 무병성(無病性), 불로사성(不老死性) 불성이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다만 이러한 불성이 우리 모두에게 구비되어 있지만 작용을 못하는 것은 바로 "무량한 번뇌가 여래성(如來性)을 덮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불성은 번뇌 가운데에 주한다. 마치 병 가운데의 등과 같아서 병이 깨지면 나타나는 것과 같다. 여기서 병은 번뇌이고, 등은 여래장이다 …. 비유하자면, 일월이 빽빽한 구름에 덥혀서 광명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가린 구름을 제거하면 광명이 나타나서 비춘다. 여래장도 이와 같다"고 〈앙굴마라경〉에서 설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불성과 여래장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죽음'의 공포 극복 '불성론' 부상**
> **무량한 번뇌가 여래성 덮어 있어**
> **초기 대승의 중요 의제 '반야사상'**
> **"여래장은 허공의 새 발자국 같아"**

초기 대승불교의 중요한 사상적 의제는 반야사상 즉 중관사상이다. 중관사상을 대승반야학 혹은 중관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포괄적으로 볼 때 중관사상의 핵심적 개념으로 연기성공(緣起性空), 반야성공(般若空性), 성공환유(性空幻有), 무자성(無自性), 성공(性空), 중도실상(中道實相), 제법실상(諸法實相) 등을 꼽을 수가 있다. 먼저 공하기 때문에 일체만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중관파의 견해이다. 즉 "일체제법이 곧 불법이다. 이 법은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며, 자성이 空한 연고이다(一切法即是佛法, 此法非法非非法, 自性空故)"고 했는데, "반야부는 일체가 공하기 때문에 제법현상을 설할 수 있다고 했다. 곧 〈중관론〉에서 보면 "공의 뜻이 있는 연고로, 일체법을 이룰 수 있으며, 만약에 공의 뜻이 없으면 일체를 곧 이룰 수가 없다(以有空義故, 一切法得成. 若無空義者, 一切則不成)"고 했다. 즉 인간을 포함한 일체사물 및 현상은 무자성으로 실체가 없고 단지 인연과 조건이 모여 일시적인 가립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연기성공(緣起性空)이라고 했다. 때문에 〈중아함경〉에서는 "만약에 연기를 보면 곧 법을 보는 것이고, 만약에 법을 보면 곧 연기를 보는 것이다"고 하기도 했다.

또 공한 성품은 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공환유(性空幻有)'라고 부른다. 비록 가립으로 형성된 세계이지만 가립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유상즉(空有相卽)이 되어야 하지만 비로소 제법현상이 이루어진다. 즉 인간이 형성된 것은 수많은 업연 및 여러 가지의 인연조건이 합성이 되어서(사대오온의 가합체) 이루어진 집합체라면, 모든 사물들 역시 많은 요소들이 모여서 구성된 형상들이다.

따라서 인간이 존재하게 된 구성요소 및 본질과 사물이 형성 되어진 제법현상의 근원을 확실하게 깨닫는 상태가 바로 반야성공(般若空性)의 경계이다. 이 반야성공(般若空性)의 상태를 제법실상, 중도실상(中道實相), 반야실상(般若實相). 무소득(無所得)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종경록〉에서 보면 "성공(性空)은 제법의 실상이다. 실상을 보면 고로 정관(正觀)이 된다"고 했으며, 또 "곧 알라! 제법의 실상 가운데 들어가면, (일체가)불생불멸이다"고도 했다. 그래서 공을 표현할 때 '비공비유(非空非有)'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개념들은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언어명자의 방편적인 개념일 뿐이다.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추론해서 얻어지는 경계가 아니다. 즉 체험의 과정을 통해서 수립되어진 경험론적 언어개념들이다.

다시 연기성공(緣起性空)이기 때문에 비공비유(非空非有)가 된다고 한다. 이 비공비유의 또 다른 표현으로 진공묘유(眞空妙有)를 말한다. 진공묘유에서 진공이 제법현상의 본질이 된다면, 묘유는 곧 제법에서 현상 및 작용을 가리킨다. 즉 진공한 상태인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묘유를 통해서 현상의 작용을 설명한다. 이 묘유한 작용이 곧 심의 작동이며, 이 심을 다른 말로 심성(心性), 불성(佛性) 혹은 여래장(如來藏)이라고도 한다. 〈앙굴마라경〉에서 말하기를 "일체 천인(天人)을 위해서 설하기를 여래장은 마치 허공의 새의 발자취와 같다. 불성으로 하여금 현현(顯現)하게 한다. (그러나)生은 있지만 몸(형상)은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 곧 이 의미는 여래의 성품을 굳이 불성으로 나타내 보이지만, 실제로 불성이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금강경〉에서 "무릇 있는바 형상은 모두 허망하다. 만약에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여래를 본다(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라고 하는 구절과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이 표현은 최고의 정점을 찍은 표현이기도 하다.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은 "불성은 각자 깨달음의 경계이며, 각자의 체험의 세계라는 것"이다. 반야부의 이러한 공성체계의 논리 역시 불성론이 형성되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상태를 선종은 "신령스러운 한 물건" 혹은 "소소영영한 자리"라고 하면서, "명자로도 얻을 수 없고, 모양이나 형상으로도 얻을 수 없다(名不得 相不得)"고 표현하고 있다. 역시 이러한 표현은 개념과 논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 즉 경험에서 얻어진 개념들로서, 모두 체험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다. 특히 선종에서 무수이수(無修而修), 무념이념(無念而念), 무상이상(無相而相) 등의 표현을 자주 쓴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곧 반야부 계통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많은 반야부경전이 대부분 초기 대승불교시기에 성립되었다. 따라서 반야중관사상은 사변적 논리를 토대로, 본성의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 주된 핵심이라면 반대로 유가유식은 인명논리를 토대로, 본성의 개념을 추리하는 형식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국대 강사〉





불교 의존해 식민지시대 혼란 극복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⑩ 미얀마 지도자들의 불심 1

신심깊은 지도자들의 통치
통합 · 독재 등에 불교 이용
우누, 불교를 국교로 제정
불자였던 네윈, 국교 폐지
테인세인 총리는 단기출가







사진 왼쪽부터 우 누 초대국무총리, 딴쉐 장군, 군부정권의 시작을 알린 네윈.





미얀마에 암흑기를 선사한 군부정권의 마지막 총리 테인세인. 그는 퇴임한 뒤에 단기출가로 부처님 법에 귀의했다.

한반도에서 고려시대까지 융성했던 불교는 조선시대의 숭유억불 정책으로 인해 민중들과 함께했던 삶 속에서 벗어나 산으로 가야만 했다. 미얀마의 불국토인 바간(Bagan)을 바라볼 때 마다, '조선시대 이전 시대를 살았던 우리나라의 왕들의 불심이 이처럼 깊었겠지' 라며 아쉬운 마음을 스스로에게 토로해 본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얀마는 과거 약 천년 전의 바간 시대때부터 현재까지 미얀마 지도자들의 불심은 매우 깊다. 미얀마 고대 왕들과 함께 했던 과거의 깊은 여행에서 잠시 벗어나 현대의 가까운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미얀마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그 중 하나가 '식민지 시기' 를 겪은 점이다. 미얀마는 영국과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미얀마 사람들의 불심은 영국의 식민지 시기에도 꺼지지 않는 촛불과도 같았다. 미얀마 사람들과 식민지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소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다. 미얀마 사람들의 대부분이 영국과 일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없다는 점이었다. "두 나라를 미워하는 감정을 마음 속에 담아 두지 않는다"는 다수의 미얀마 사람들의 대답은 지금까지도 나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미얀마를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에 대해 미얀마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은 불교 문화와 관련이 있다. 미얀마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Lobha(탐)' 'Dosa(진)' 'Moha(치)' 인 삼독을 자신의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자각하고 수행한다. 그리고 특히 삼독이 많은 사람들을 미얀마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과 가까운 사람으로 두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한 불교 문화가 미얀마 사람들이 영국과 일본에 부정적인 감정을 현재 많이 갖고 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다.

우 누 초대국무총리의 불법사회주의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1948년에 초대 국무총리로 우 누(U Nu)가 임명되었다. 우 누는 늘 새벽 4시경에 일어나서 수행을 할 정도로 매우 불심이 깊은 불교 신자이자, 독립운동가 중의 한 명이었다. 우 누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혼란해진 사회를 '불교' 를 구심점으로 삼아 통합하려고 노력했다. 우 누는 우 버쉐(U Baw Swe)에게 영향을 받았다. 우 버쉐는 불교를 민족주의 및 반식민지주의 운동과 동일시 여겼으며 불법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붙여 불법사회주의 경제관으로 발전시켰다. 우 버쉐는 미얀마어로 스탈린에 대한 글을 썼는데 이 글의 제목이 'Stalin-Builder of Lokka Nibban' 이었다. 한국어로는 '스탈린- 세상(인간들의)의 열반을 만든 사람' 이라는 뜻이다.

우 누는 사회적인 통합을 위해 불교를 중심으로 잡았다. 135개가 넘는 소수민족과 다양한 계층, 그리고 사상적으로 나눠진 사람들을 통합할 수 있는 축이 불교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얀마의 사회적인 상황으로 불교와 민주주의 제도, 사회주의 경제를 혼합한 우 누의 불법사회주의(Lokka Nibban, 세상 열반)가 탄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불법사회주의에 대한 우 누의 사상이 명확하지 않아 이 정책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 했다. 우 누는 불심이 매우 대단했는데, 그의 임기 중 미얀마 정부기관으로 '종교부' 가 만들어졌다. 또한 1954년~1956년에는 제 6차 결집을 양곤에서 개최했다. 우 누의 제 6차 결집은 전륜성왕이 되기를 희망했던 그의 소망을 절실히 보여주는 일이다.

우 누는 자신의 인생에서 출가를 7번을 했으며, 국립학교에는 학생들이 경전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불심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되었다. 자신이 전륜성왕으로 국민들에게 각인 되기를 원하던 그의 소망이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없게 했다. 결국 그는 미얀마의 암흑기를 선사한 군부정권의 시작을 알린 네윈(Ne Win)에게 자리를 빼기고 말았다.

미얀마의 암흑기, 군부정권

1962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네윈은 정권을 잡자 마자 군부정권의 독재를 위해 정치에서 종교의 힘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1961년 우 누가 불교를 국교로 지정한 것을 폐지했다. 또한 조금이라도 민주적인 기관들은 해체 했으며 자신을 중심으로 수직적인 권력구조를 형성했다. 1962년 4월 30일에 네윈은 '버마식 사회주의' 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버마식 사회주의 이념 안에는 불교, 민족주의, 마르크스 사상이 섞여져 있었다. 이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해 미얀마 경제는 최빈국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

네윈은 자신의 독재정치를 위해 불교 국교를 폐지했지만, 신심이 깊은 불교 신자이자 미신을 믿는 자였다. 그는 불교와 더불어 미신을 굉장히 믿었는데, '마하 위자야(Maha Wizaya) 파고다 건립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80년에 쉐다곤 파고다에서 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마하 위자야 파고다를 건립했다. 원래 파고다를 세우려고 했던 곳의 위치가 좋지 않다는 점쟁이의 말 한마디에 그는 파고다의 위치를 옮겨 지었다. 바간 왕조 때부터 전륜성왕을 꿈꾼 미얀마의 왕들은 자신의 공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파고다를 건립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네윈은 과거 미얀마의 왕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에서 군사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찾으려 노력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미얀마 마지막 왕조인 꼰바웅(konbaung) 왕족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혈통이 깊은 지도자의 입지를 굳건히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미얀마의 과거 왕들은 승가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자연스럽게 스님들은 왕들의 왕사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네윈의 경우에는 올바르지 못 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승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 했다. 승가의 인정을 받지 못 하면 미얀마 국민들에게 '진정한 지도자' 로 인정과 지지를 받기가 힘들다. 미얀마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미얀마 사회와 문화를 자세히 인지하고 있던 네윈은 정치에서 직접적인 승가의 힘을 분리하기 위해 불교를 국교에서 폐지했다. 또한 자신의 정권을 정당해줄 어용 승가를 조직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분위기를 조성했다.

미얀마 승가와 국민들에게 네윈의 이러한 정치적인 처세는 한 마디로 '눈 감고 아웅' 하는 격이었다. 네윈은 불교개혁이라는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승려 정화를 비롯하여 승려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미얀마 승가와 국민들의 많은 반발을 샀다. 네윈은 자신의 입지가 나아지지 않자, 미얀마 고승들에게 물질적인 거액의 보시를 하며 자신의 편에 서주기를 바랬다. 미얀마 고승들이 네윈을 미얀마 지도자로 지지해주기 시작하면 미얀마 국민들이 자신에게 반발하는 명분을 찾는 것이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얀마 승가는 잘못된 방법인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네윈을 비롯한 군부정권의 편에 서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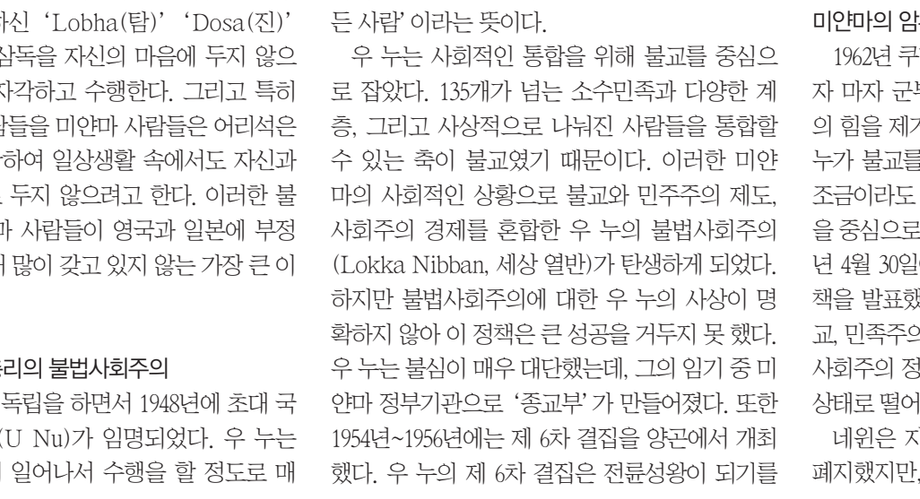
정치적 변화에도 법향 이어져

미얀마 국민들의 군부정권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8888민주화 항쟁은 미얀마 국민들뿐만 아니라 승가도 큰 역할을 했다. 8888민주화 항쟁으로 물러나게 된 네윈은 자신의 측근인 쏘마웅(Saw Maung)장군에게 자리를 넘겨줬다. 쏘마웅 또한 미얀마 왕조와 관련된 불교 정통성을 이어 받으려는 집착이 굉장히 강했는데, 본인이 미얀마 바간 왕조의 짠싯타 왕의 화현(化現)이라고 주장했다. 딴쉐(Than Shwe)장군 또한 네윈처럼 네피도에 우빠다딴띠(Uppatasanti) 파고다를 건립하였고, 미얀마 군부정권의 마지막 총리인 테인세인(Thein Sein)은 퇴임한 뒤에 단기 출가를 하여 부처님 법에 귀의했다.

약 천 년 전 시작된 미얀마의 불교는 현재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대와 정치의 형태만 부처님 법인 '무상' 에 따라 변했을 뿐, 미얀마에서 부처님 법의 향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도 미얀마에서 불교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며, 미얀마 사회와 문화 그리고 정치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미얀마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그들의 마음 속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불교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양곤대 박사과정〉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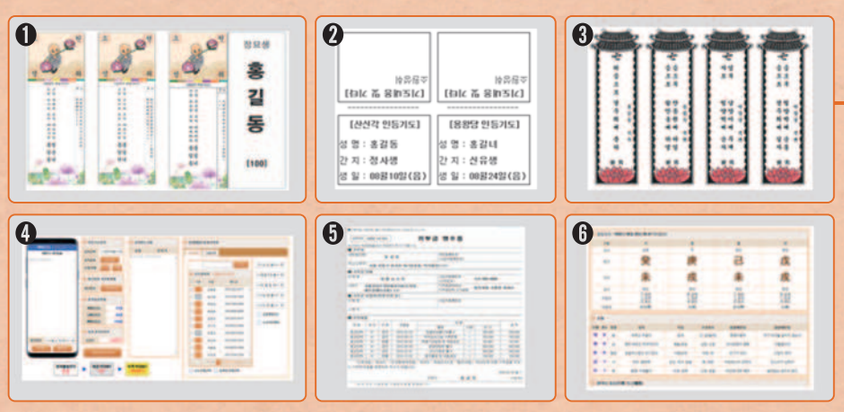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GM since 2015 GMSOFT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⑳ 무분별지(無分別智)

어떤 스님이 임제에게 물었다.

"부처와 마군이 어떤 것입니까?"

"그대가 한 생각 마음에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마군이며, 그대가 만약 모든 법이 생겨남이 없고, 마음은 허깨비 같아서, 더 이상 하나의 티끌도 하나의 법도 없어서 곳곳이 청정하다는 것을 통달하면 이것이 부처이다. 그러나 부처와 마군은 더럽고 깨끗한 상대적인 두 경계에 지나지 않는다. 산승의 관점에서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다. 이것을 알면 그만이다. 오랜 세월 수행할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서 언제나 특별한 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설사 어떤 법이 이보다 나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꿈과 같고 허깨비와 같다고 말한다' 했으니 산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대목에서 한 말을 굳이 보충 설명한다면 깨달음을 얻은 경계는 무(無)의 경계다. 유(有)의 경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 말도 설명을 위한 표현일 뿐 깨달으면 사실 아무 경계가 없는 것이다. 자다가 꿈을 꿀 때는 몽경(夢境)이 있지만 깨고 보면 몽경은 모두 사라져 아무 것도 없는 것과 같다. 이래서 '본래 아무 것도 없다[本來無一物]' 는 말이 나온 것이다.

임제가 어느 스님으로부터 "어떤 것이 부처와 마군인가?"라고 질문을 받고 답해 주면서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고 말한다. 교에서 말하는 아공(我空), 법공(法空)을 증득한 절대무의 경지를 나타내는 말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는 말이다. 부처는 깨달은 성인이고 마군은 수행을 방해하는 무리다. 깨달음을 증득한 분상에서는 수행할 것이 없다. 수행할 것이 없을 때는 수행을 방해할 것도 없는 것이다. 임제는 또 다른 장(章)에서 "도(道)도 닦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도를 닦는다고 하면 온갖 그릇된 소견만 다투어 일어날 뿐(若人修道道不行 萬般邪見競頭生)"이라고 했다. 이는 곧 분별하는 생각이 붙으면 도를 등지게 된다는 말인데 이 장에서도 법이란 법이 특별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을 뜻한다. 〈금강경〉의 '정해진 법이 없다(無有定法)' 는 말과 같다.

또 법은 본래 없던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있던 법이 어느 때에 가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어느 때고 그대로이고, 있고 없고를 떠나 아무 일이 없는 것이다.

흔히 쓰는 말에 '능소(能所)가 끊어진다' 는 말이 있다. 능(能)은 인식하는 주체이고 소(所)는 인식 되어지는 대상이다. 다시 말해 주관과 객관의 상대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능소(能所)가 끊어진 주객(主客)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난 지혜를 무분별지(無分別智)라 한다. 깨닫게 되면 이 무분별지를 얻게 된다고 한다. 분별이 없는 경지이므로 가타부타할 것이 없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수행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 한 임제의 말이 이러한 차원에서 나온 말이다.

간화선의 한 교본(敎本)으로 알려진 〈몽산법어〉에서도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이 바로 생사(生死)다.(念起念滅卽生死)"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은 분별심 속에 생사가 있다는 말이다. 한 생각 끊어지면 생사가 없으므로 생사를 유발하는 원인이 생멸심(生滅心)이다. 이 생멸심을 벗어나는 것이 도에 들어가는 것이라 했다.

"밖으로 모든 반연(攀緣)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墻壁)과 같아야만 도(道)에 들어갈 수 있다.(外息諸緣 內心無喘 心如墻壁 可以入道)"

달마가 혜가에서 도에 들어가는 방편을 일러준 말이다.

주로 동양에서 말해온 도(道)와 서양에서 말해온 철학의 차이를 무분별지와 분별지로 구분하여 말하기도 한다. 또 노자 〈도덕경〉에도 학문과 도를 비교해 말하면서 학문은 쌓아 늘려가는 것이지만 도는 비워 덜어가는 것이라 하였다. 분별은 늘리는 것이고 무분별은 분별이 없는 것이니까 텅 비어 아무것도 들어있는 내용이 없는 것이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3독 3취정계로, 육적 6바라밀로



세상 속 경전읽기

⑳ 삼독육적(三毒六賊)

붓다께서 '3가섭(三迦葉)이 이끄는 천 명의 배화교도' 를 개종시키고 설법한 〈연소경[燃燒經; 북전(北傳)대장경의 시현경(示現經)]〉이 핵심경전 세 가지 중 하나임을 앞에 언급하였다.

〈연소경〉에서 설하기를 "근·경·식·촉·수[根·境·識·觸·受; 6근·6경·6식의 18계(界) 및 접촉·접촉의 느낌]가 탐진치(貪瞋痴)의 삼독(三毒)으로 불타고 있고, 생노병사우비고뇌(生老病死憂悲苦惱)로 불타고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근경식촉수(根境識觸受)를 싫어하고 멀리해 18계와 촉·수(觸·受)가 사라지고 해탈하여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내용이 고스란히 중국 선종에도 살아있다. 파상론에서는 이를 어떻게 묘사하였는지 살펴보자. 달마대사의 저서 모음으로 알려진 〈소실육문(少室六門)〉의 제2문 파상론(破相論)은 신수(神秀, ?~706)대사가 속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미 언급하였다.

파상론에서 "무명심(無明心) 곧 3독6적(三毒六賊)으로 인해 생사고해에 윤회하니, 3독을 멎어 3취정계(三聚淨戒)로 바꾸고, 6적(六賊)을 6바라밀(六波羅蜜)로 바꾸면 고통을 멈춘다"고 했다.

"(제자가) 여쭙기를,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참부처의 성품과 모든 공덕이 깨달음을 근본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명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달마대사) 말씀하시기를, '무명심에는 비록 수많은 번뇌와 악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탐진치 3독심을 뿌리로 한다.' " [問。上說眞如佛性一切功德因覺爲根。未審 無明之心以何爲根。答。無明之心。雖有八萬四千煩惱情欲及恒河沙衆惡。皆因三毒。以爲根本。其三毒者。卽貪嗔癡是也。] 〈破相論 T2009_.48.0367a15-18〉

삼독심은 스스로 그 안에 모든 악을 능히 지니고 있으니, 마치 큰 나무에서 나무의 뿌리는 하나이나 그 가지와 잎이 무수히 많은 것과 같다. (아니) 저 삼독심의 각각의 뿌리에서 모든 악한 일이 생성됨은 오히려 나무뿌리에서 가지와 잎이 생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아 나무의 비유로도 모자랄 지경이다. 큰 나무의 한 뿌리에서 나온 잎과 가지의 수보다, 삼독심 각각에서 나오는 악한 일의 종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삼독심이 여섯 감각기관[6근]을 드나들며 여섯 알음알이[6식]를 내어 감각대상[6경]에 탐착해서 능히 모든 악행을 지어내니, 참나의 몸을 가리는 여섯 알음알이[六識]는 곧 여섯 도둑[六賊]이다.

"이와 같은 삼독심의 뿌리(본체)에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눈,귀,코,혀,몸,생각)과 이에 따른 여섯 가지 알음알이(안식,이식,비식,설식,신식,의식) 곧 여섯 도둑이 나온다. 여섯 알음알이가 여섯 감각기관을 드나들며 모든 대상에 탐착하여 능히 악행을 지어 참나의 몸을 가리므로 여섯 도둑[6적(六賊)]이라 한다." [如是三毒心。於本體中。應現六根。亦名六賊。卽六識也。由此六識出入諸根。貪著萬境。能成惡業。障眞如體。故名六賊。] 〈破相論 T2009_.48.0367a21-24〉

〈연소경〉에서 '삼독심으로 불타는 18계' 가 〈파상론〉에서는 '삼독심에서 6적이 나온다' 고 하였고, '6근 또는 6식이 6경에 탐착하는 것' 을 '진여체(眞如體)를 장애하는 6적(六賊)' 으로 묘사하였다.

모든 중생이 이러한 '3독 6적' 으로 인해 몸과 마음을 어지럽히고, 생사의 바다에 빠져 6도윤회를 하며, 모든 고통을 받는다. 이는 마치 상류의 작은 샘물이 끊임없이 넘쳐흘러 양자강과 황하강을 이루어 만 리를 물결치며 흘러감과 같다.

만약 근원의 샘을 끊으면 모든 흐름이 멈추듯, 해탈을 원하면 3독심을 세 가지 깨끗한 계율[三聚淨戒]로 바꾸고, 여섯 도둑을 6바라밀로 바꾸면 자연히 모든 고통의 바다에서 멀리 떠나게 된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⑯ 닦음의 길 6

'육식', 파계인가?

출가자가 육식을 하면 계율을 어기는 것일까? 이는 오래 전부터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던 것이었다. 육식은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불살생계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대부분 육식을 하지 않는다. 요즘은 채식 위주의 사찰음식이 건강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비건(vegan)이라고 해서 고기와 생선은 물론 우유나 달걀 등 동물성 원료가 들어간 모든 식품을 먹지 않는 철저한 채식주의자도 관심을 끌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육식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이전보다 많아진 것 같다. 그렇다면 불교의 역사에서 고기는 금지된 음식이었을까?

붓다가 활동하던 당시 육식이 계율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고기는 먹어도 되는 음식이었다. 그 조건이란 동물을 잡는 모습을 눈으로 보지 않고(不見), 나를 위해 잡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며(不聞), 나를 위해 잡았다고 의심되지 않는(不疑) 음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삼종정육(三種淨肉)이라 하는데,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청정한 음식이면 먹어도 좋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붓다가 육식을 허용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당시 출가한 사문에게 걸식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었지만 하심(下心), 즉 자신을 낮추는 중요한 수행이었다. 얻어먹는 사람이 어떻게 우쭐하는 마음을 낼 수 있겠는가. 상대가 주는 음식이 고기인지 아닌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가리지 않고 그저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였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붓다에게 육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던 인물이 있었다. 바로 붓다의 사촌인 데바닷타였다. 그는 평생을 붓다에 대한 콤플렉스로 고통 받으며 살아온 인물이다. 그는 세 번에 걸쳐 붓다를 죽이려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비참한 최후를 맞기도 하였다. 그가 바로 붓다에게 육식을 금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창한 것이다. 이 문제 때문에 한때 승단이 분열되기도 했지만, 붓다는 데바닷타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수행자 각자의 판단에 따라 보고(見) 듣고(聞) 의심스러운(疑) 고기가 아니라면 먹어도 좋다고 결정했던 것이다.

이런 흐름에 변화가 생긴 것은 대승불교에 이르러서였다. 인도의 대중종교로 성장한 힌두교에서는 육식보다는 채식을 선호하였다. 특히 인도의 신분제도인 카스트에 철저한 바라문들은 고기를 취급하는 천민들과의 접촉을 기피하였다. 이유는 단순했다. 천한 신분과 부딪치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교계에서는 육식을 금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외면할 수 없었고 결국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불교 내적으로도 육식을 금지하는 논리가 필요했다. 이때 활용된 근거가 불살생계는 물론이고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갖추고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 는 〈열반경〉의 가르침이었다.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비의 마음을 지녀야 하는데, 어떻게 살생을 하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범망경〉의 48경계(輕戒) 가운데 세 번째 조항에서도 육식은 자비의 종자를 끊는 행위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대승에서는 육식을 금하는 분위기지만, 남방에서는 초기불교의 전통에 따라 육식을 허용하고 있다. 대승에서도 육식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수행자 개인에 따른 편차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육식의 허용 여부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현상이지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육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동물만 생명이 아니라 식물도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채식 역시 살생을 하고 있는 셈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생명을 해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이다.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대중공양 전에 합송하는 것처럼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으니 말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사후관찰은 마음챙김 아니다

명상書 톺아보기

김정호의 〈MPPT 워크북〉

〈4〉 마음챙김의 주의점



메타인지 통한 심리변화
혹은 자기관찰서의 감정
욕구와 생각의 적용일뿐
마음챙김의 상태 아니다

마음수행법 교육의 유의할 점

다양한 마음기술, 마음 수행법들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있어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모든 수행법이 마음조절 혹은 마음관리의 능력, 즉 마음기술을 양성하는데 이러한 능력 배양의 목적은 세속적인 욕구를 늘리고 최대한 충족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줄이는데 있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데 있다. 따라서 마음관리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개인적 욕구 충족의 극대화를 꾀하거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유념사항은 특히 욕구와 생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긍정심리의 마음기술에 해당된다.

욕구와 생각을 비우는 명상은 세속적 욕구를 내려놓는데 도움이 된다. 마음 챙김의 수행법 역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므로 현명한 선택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욕구와 생각을 사용하는 수행법은 욕구와 생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잘못 사용될 여지가 있다. '부자가 되는 명상' 이나 '자비 명상' 은 실제로는 둘 다 욕구와 생각을 사용하므로 명상이 아니라 긍정심리의 마음기술인 심상법에 속하는데, 사용의 목적은 서로 전혀 다르다.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미래에 거부가 된 모습의 심상을 그리며 집중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자칫 개인적인 탐심을 조장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 심상을 사용하는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자비로운 심상을 사용하는 것이 심상을 사용하는 점에서는 같다고 해도 내용상 동일하게 건강하거나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EQ로 많이 알려진 정서지능도 일종의 마음기술로 볼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은 물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다. 한때 정서지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었다. 덩달아 정서지능을 가르친다는 사람, 배우겠다는 사람도 많았다. 정서지능이 높아지면 자기 자신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헤아려서 협력도 잘하고 좋은 성과도 내고 서로 행복하게 지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정서지능에 관심을 가진 적잖은 부모들은 정서지능이 높아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믿었던 것 같다. 즉, 정서지능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 마음을 통제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종하는데 쓸모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정서지능을 높이려고 한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 심상법을 배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편 붓다 당시 수행된 백골관이나 부정관은 몸에 대한 탐심을 줄이려는 좋은 의도로 수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었다. 몸에 대한 탐착심을 버리는 것에서 더 나가 몸을 혐오하게 되고 자살자가 속출하여 다른 수행법으로 대체된 적이 있다.

MPPT에서 욕구와 생각을 사용하는 마음기술을 '긍정심리' 로 분류한 것은 현대 긍정심리의 중재법을 도입한 의미도 있지만, 사용되는 욕구와 생각의 내용이 긍정적이고 건강하며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미도 담는다. 참고로 티베트 수행 전통에서 보면 과거에도 흑마술이라고 하여 마음수행법을 사적인 목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보인다. 마음기술을 가르치고 배울 때는 기본적으로 소아적 이기성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적으로는 성숙에, 사회적으로는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데 기여하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념사항은 특히 욕구와 생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긍정심리의 마음기술에 더 많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음 챙김이 아닌 것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밖의 현상을 관찰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나에 대한 관찰에는 낯설다. 나에 대한 관찰을 하더라도 특정한 욕구나 생각이 개입된 관찰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자세히 보면 관찰이라기보다는 지나간 상태나 행위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하철에서 멋진 남성을 보고 연애하고 싶다는 욕구와 생각이 일어났고, 그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것에 대해 스스로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 것은 마음 챙김이 아니다. 이미 벌어진 마음의 작용에 대한 판단이며 평가이므로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챙김이 아니다.

지금 마음에서 경험되는 것에 대한 즉시적 관찰이라고 해도 현재의 상태나 행위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가 포함되면 마음 챙김이 아니다. 불안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을 때 다리가 떨리고 불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음을 보지만 있는 그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 '떨면 안 돼, 불안해지면 안 돼.' 등의 욕구가 개입하고 있다. '이러다가 발표를 망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이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더욱 긴장하고 불안이 솟구치게 된다. 이런 자기관찰은 마음 챙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기능적이다. 차라리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그냥 발표할 내용에만 주의를 주고 발표를 하는 것이 낫다. 자기 자신에 대한 순수한 관찰이 아니라 욕구와 생각이 개입하고 있는 관찰이다. 순수한 주의가 아니라 신경증적 주의를 사용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숙고하고 반성함으로써 자기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마음 챙김처럼 자기객관화이지만 마음 챙김처럼 동시 진행적이지 않고 사후적이다. 마음 챙김은 동시자기객관화, 숙고와 반성은 지연자기객관화라고 부를 수 있다. 글을 쓰든 혹은 가까운 사람이나 상담자와의 대화를 통해서든 사후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객관화 하는 것은 긍정적인 행위지만 마음 챙김은 아니다.

마음 챙김은 순수한 상위주의로서 순수한 상위의식, 즉 순수한 자각을 수반하게 된다. 즉, 마음챙김은 지금 여기에서의 마음작용에 대한 주의이고 이러한 주의에 따라 지금 여기에서의 마음작용에 대한 순수한 자각이 수반된다. 상위주의가 보는 행위라면 상위의식은 보는 경험이다. 그런데 종종 상위의식의 의미로 메타인지 즉 상위인지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 챙김은 반드시 상위인지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메타인지는 인지에 대한 인지이다. 기본적으로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앎이다. 지금의 경험에 대한 알아차림이 아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사람이름에 대한 기억이 약하다고 아는 것은 메타인지다. 자신의 기억이라는 인지의 특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메타인지가 있으면 사람을 처음만나고 이름을 듣게 되면 종이에 적어두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 기억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할 것이다. 혹은 내일 아침에 학교 준비물로 농구공을 가져가야 할 때 자신이 아침에 농구공 생각을 못할 것이라고 자신의 인지적 특성에 대해 아는 메타인지가 있으면 신발 신는 곳에 농구공을 미리 놓아둘 것이다. 이와 같은 메타인지는 마음 챙김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마음 챙김을 잘하면 자기 자신의 인지적 특성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메타인지가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은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메타인지를 자신의 인지에 대한 인지만이 아니라 자신의 동기, 정서, 성격 등의 특성에 대한 앎으로까지 확장해보면 마음 챙김은 이러한 모든 의미에서의 메타인지 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 챙김을 설명할 때 정신화와의 관계를 궁금해 하기도 한다. 정신화는 타인의 행동 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추론이다. 따라서 마음 챙김이 정신화는 아니다. 그러나 마음 챙김이 정신화를 도울 수는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처리는 위-아래 처리, 즉 자신의 욕구, 사전지식, 선입관 등의 작용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마음의 작용을 잘 볼 줄 알고 위-아래 처리를 중지할 줄 알면 타인에 대한 바른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화엄경』 주석의 결정판,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초』!
1,200년 침묵의 역사를 깨고 이 세상에 처음 눈을 뜨다!

『대방광불화엄경 수소연의초』 전체 100권 중 1차분 10권 『화엄현담』 출간!

『청량국사화엄경소초淸涼國師華嚴經疏鈔』 1~10
– 화엄현담華嚴玄談 ①~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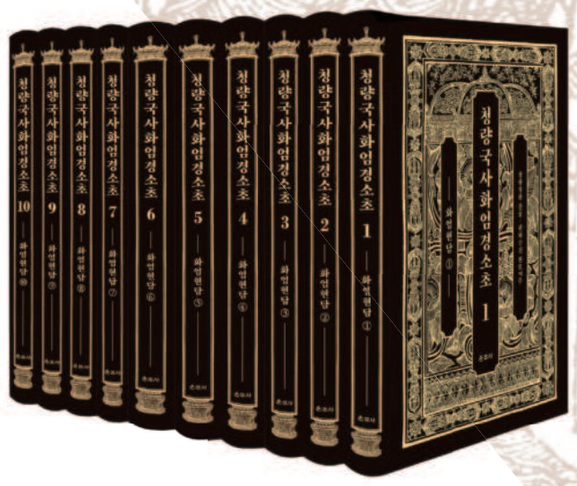
이 책의 완역은 한국불교 교학의 일대 쾌거이자 자긍심이다!
이 시대 화엄종주 수진 스님이 엮어내는 화엄의 대서사시!

청량 징관의 『화엄경소초』는 80권본 『화엄경』에 소疏 60권, 초鈔 90권을 붙인 방대한 분량에, 대소승의 경과 논은 물론이고 유가와 노장까지 종횡으로 넘나드는 해설을 붙여, 가장 뛰어난 『화엄경』 주석서로 꼽힌다.

원문을 제외하고 번역만 원고지 10만 매에 달하는 방대한 불사!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고지식할 정도의 꼼꼼한 번역!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상세하고 치밀한 각주!



1권: 22,000원 2권: 20,000원 3권: 20,000원 4권: 22,000원
5권: 25,000원 6권: 25,000원 7권: 17,000원 8권: 17,000원
9권: 15,000원 10권: 17,000원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역주 / 신국판양장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94호 | 15 | 전면광고

그 성질이 인자하고 부드럽고 온화하면
현인이나 우인이나 모두 따르고, 탐심 많고
거칠면 사람도 짐승도 모두 멀리 떠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원주림》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발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한옥별장
요사채	재실
누각	산신각

펜션(육송 나무목재만 사용)
원명 010-4300-9104

• • •
도심속 아름다운 절
운영할 비구니 주지스님
비구니 기도스님
사무장, 공양주를
모십니다
• • •
010-6892-3999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네이버에 위 책이름 또는 작가 '태산선사' '손재찬' '손도사'등을 꼭 한번 검색 • 구입해 보세요!!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사찰화재 보험

• 목조건축물 OK!! •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디자인 명리학 수강생모집

운명을 디자인한다
지금까지 이런강의는 없었다
보다 쉽고 정확하게 간명할 수 있는 신개념의 사주명리학
(기초부터 고급핵심이론까지 1년과정)
여기저기서 배워도 제대로 통변할수 없었는 분들 초보자, 스님, 무속인, 일반인 모두 환영
문의 운명디자인연구소 010-7328-0089

무료 灸쑥뜸

코로나로 발생으로 수행정진 하시는 스님, 불자님 건강으로 인하여 수행정진이 어려운 사부대중님들께 쑥뜸 공양을 시행 하고저 합니다.
진행과정 : 약쑥은 강화산 7년숙성한것
❶ 간접구(大)1일2시간30 ❷ 20일간 진행.(외출불가) ❸ 쑥뜸,환약,부항.진행 방사관계로 1차10명이내로 제한.10회차까지 진행할예정. (불자님들은 식비만 부담)
장 소 : 동해 향운암 (바다가 조망되는곳)
Tel.010-2873-3446 www.향운암.kr E mail.ee1929@Daum.net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예산)
• • •
010-5576-2271

• • •
공양주
모십니다
(울산 도심사찰)
• • •
010-5736-1835

특수한

기도법 전수, 스님에 한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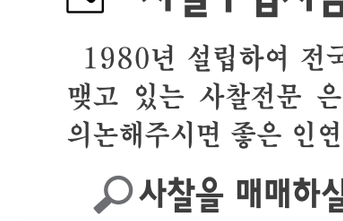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 • •
팔공산 천년고찰
운전도 하고 주지스님 수발하실 보살님 구함
(50대~60세)
• • •
010-8833-4416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수강생 모집(그림)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매주 수·목요일 주 2일 [월 8일]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대방광불화엄경의 감춰진 비밀
초발심자가 문뜩 정각을 이루는 법!!
1. 화엄경의 교주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2. '신위도원공덕모(信爲道元功德母)'라는 화엄경의 표현에서 믿음(信)은 법신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다.
3. 믿음을 알고 발보리심한 보살은, 찰라지간에 성불한다. 그래서 '초발심시변정각'이라고 했다.
4. 선견약이라는 대약수는 보리심인데, 일체 질병과 독한 전염병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준다.
5. 앞으로 한국의 화엄사상은 전세계 정신문명의 새로운 빛이 된다.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강의 ◉◉
소책자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문의 : 010-7131-7084

2009년 보이차 숙차(노동지 병차) "9978"[357g] 식약청 정식 통관제품



전통적인 맹해 차창의 7572 배방방식으로 오랜동안 보관하셔도 좋고, 바로 드셔도 그 맛과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한정수량 특별판매가
▶ 노동지 병차 [숙차(357g)] 1개 ····· 55,000원
▶ 노동지 7자 병차 [숙차(357g) x 7개] ····· 308,000원
■ 식품유형 : 단일침출차 (보이숙차) ■ 중량 : 357g ■ 원산지 : 중국 운남성 ■ 생산일자 : 2009년 1월 6일 ■ 제조원 : 안녕해만차업 유한책임공사
문의:02-732-1520 마하몰 (www.mahamall.co.kr) 계좌번호: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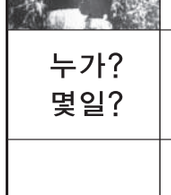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94호 | 16 | 전면광고

사물이 생겨나면 다할 때가 있고 흥하면 쇠하게 마련, 만물이 모두 이와 같이 무상하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역사이산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시내토굴
◎ 대지 : 19평
◎ 지상 3층건물
◎ 각층 : 19평
◎ 매가 : 1억7천5백
◎ 위치 : 충북 제천
◎ 부지 : 35,000평
◎ 사찰부지, 도로접
◎ 배산임수
◎ 매가 : 평당15,000원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사찰순례,채권상담,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35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1동은 세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 11억 5천만원

010-3269-102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좋 은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신도다수
-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3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010-5718-0073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1580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5분거리
- 관악산, 까치산 청정도량
- 재래시장 인근, 이동인구 많음 4층건물 중 2층 3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120만원
- 시설 권리금 없음

010-3657-95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 대응사(종교부지 1700평) : 백병길 171 ● 병산리 산168-2번지 4,130평 (총 5,830평) ● 건물 : 대웅전 1동. 요사채(1,2층)1동, 기도방1동, 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임대에서 매수전환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조건 및 금액절충)

010-4225-0012

인천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 : 창고형, 1층 : 공양간(방3개, 화장실), 2층 : 방3, 화장실, 3층 : 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 가액 : 3억3천5백(사정상 급양도함, 사찰연력 : 40여년) ● 답사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IC 10분거리, 유명한산 칠부능선, 365일 1급수물 사시사철 흐르고 옹달샘 있음, 가옥 40평, 25평 2채
- 대지 : 8,500평
- 가액 : 12억 8천만원
- 터를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 경기,충남지역 상가와 물물교환 가능

010-4130-0606

동 진 불 사

◎ 위치 : 경주시 소재
◎ 부지 : 약 1천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목조,3포7포,단청)
◎ 요사채 : 60평(목조,황토)
◎ 산신각 : 10평(목조,닷집,단청)
◎ 가액 : 9억7천만원
◎ 특징 : 신도관리가 잘되어있어 사찰운영이 용이하고 1급수의 계곡과 조경이 어우러진 대가람의 사찰임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 부지 : 500평(대지)
◎ 법당 : 30평
◎ 요사채 : 40평
◎ 기타 : 산신각,연못,석등
◎ 가액 : 7억5천만원
◎ 특징 : 도심 외곽의 조용한 사찰로 기도정진할 도량으로 참 좋습니다.

**** 제주,부산지역 급매물 찾습니다 ****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동진불사 010-4942-045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 50평 ● 요사 : 65평
- 대지 : 5백평 ● 임야 : 4천평
- 가액 : 11억

010-4547-499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 대지 : 60평 / 법인양도 가능
- 법당,요사,접견실,나한전,차고
- 도심포교 요충지(시설,비품 일체)
- 양도 또는 산중 사찰교환가능
- 양도가 : 3억 4천 (보시고 절충)

010-7763-446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동대(병원)10분
- 대지250평, 하천부지400평
- 8각법당30평, 요사채2동, 종무소1동, 버스20분격, 2차선에서 절까지200m, 산끝, 계곡1급수도 있고 면사무소, 우체국, 목욕탕 모두10분내, 슈퍼마켓 1분
- 2억9천(부동산 업체 사절)

010-9388-021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3층 약50평
- 지하철 도보3분, 대전역 3정거장 도보20분
- 보증금 5백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3천5백만원

010-7725-3196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 법당 30평, 요사채, 공양실
- 권리금 4천 3백만원
- 보증금은 없음
- 월 25만원 (상담후 결정)

010-7289-0059

좋은사찰안내

- 위치: 경남 통영시 중심지 큰도로변
- 대지: 약60평
- 건평: 1층법당21평,공양간, 방 약10평,2층요사채15평, 건물앞주차5대,도량에3층 석탑,석등
- 가액: 3억2천

010-8669-5665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살아숨쉬는 생명의 돌"

희담석 방석(고급형) 수량 한정판매~!!!

~~정가 198,000원~~ ➡ 할인판매가 120,000원



- 색상 : 살구색
- 크기 : 450mm X 450mm
※베개겸용 휴대용케이스 증정

희담 가루방석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상시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희담 가루방석을 함께 사용하시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방법

- 의자나 자동차 등에 일반 방석으로 사용하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높여 줍니다.
- 수면시 베개 대용으로 쓰시면 빠른 피로 회복 및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머리나 목 부위에 응용하면 머리가 맑아지며, 기억력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판매문의 : 1688-9099 (02-732-1520)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불자의 궁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 스님

따뜻하게 둘로 보지 않는 마음, 이것이 부처의 마음이다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마음으로 음미해 가면서 '자기의 맛'으로서의 맛을 알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항상 겉으로 돌아가는, 기복으로 돌아가는 분들은 부처님의 속을 알 수가 없고 남의 속을 알 수가 없고, 하다못해 애들의 속까지도 몰라. 부부로 살면서도 자기 남편의 속을 모르고 자기 자식의 속을 몰라.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식이 돼 봐 주는, 내가 자식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서 안으로 굴려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남편이 어떡할 때 다시 한번 바꿔서 내가 남편이 되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굴림이 여러분에게 삶의 의지와 생동력 있고 보람 있는 삶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복으로 항상 날뛰고, 빌고, 달라고 그러고 온통 자기 것, "자기 자기 자기" 하면서 자기가 자기로서 달라는 것, 이렇게 둘로 안다면 항상 얻으러 다녀야 하고, 항상 종을 면치 못해. 주인이 되지 못한 채 종을 면치 못함으로써 종 문서는 항상 따라다니게 마련이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이 색(色)만 보고 이름만 보고 이렇게 모든 걸 해 나가는데….

어저께 어떤 어린애 하나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몸뚱이를 쥐고 아무리 이름을 부르며 불쌍하다 해도 그게 안 불쌍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걸 건지기 위해서는 이 마음 깊이 진정으로 내 아픔과 같이 내 마음으로 굴리면서 그것을 끝내, 한생각에 항상 같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 주는 것이 그 애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길을 밝혀 주는 길입니다. 몸뚱이를 붙잡고 이름을 붙잡고 아무리 말을 해 봤던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는 데의 그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누구나가 마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나도 나가면서도 '어, 그래. 너의 장래를 위해서 밝게 길을 인도하리라.' 이렇게 하고서 나갔어요. 그것이 여기에서 부모가 기른 것보다도 더 잘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나이 젊어서, 출가를 해 가지고 또 돌아다니게 될 그 무렵에 빨치산으로 낙인이 찍혀 가지고 집으로 연락이 갔던지 어머니가 허위단심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가 참 오래간만에 만나는 상봉이었죠. 그랬는데 오셔서 보니까 옷도 다 갈갈이 뜯어졌지마는 살도 입술도 얼굴도 이건 볼 수 없이 갈갈이 뜯어져서 피가 나고 딱정이가 떨어지고 갈라지고 이랬으니 사람을 볼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는 순간 까무러쳐서 그냥 주저앉아서 수족을 못 쓰시게 됐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거품이 나오면서 피가 흘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기에 순간 그렇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분명코 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리시죠? 나는 이 세상에 나와서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만 봤지, 그 고생 고생, 말도 못 하는 고생만 봤지, 다른 거는 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되고자 해서, 내가 참인간이 된다면 어머님 무릎 앞에 다시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셈 대십시오. 사람이 언제 같이 만났다가, 뜬구름과 같이 몰렸다가 뜬구름 헤어지듯이 헤어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먼저 죽으나 나중 죽으나, 어린애 적에 죽으나 쪼금 커서 죽으나 어른이 다 돼서 죽으나 자식 죽었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저 오빠가 오시걸랑은 따라가십시오." 하고선 그냥 그 길로 가니까 손도 쳐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족은 못 쓰나 눈물은 줄줄줄줄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손으로 보따리 싸 가지고 온 걸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 보따리를 가지고 가라는 줄 알고 보따리를 들고 그냥 갔습니다. 8·15 해방 되고 자기 딸자식, 자식이라고 오면 입히겠다고 소중히 비로드 옷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 벌이나 가져오셨습니다. 아주 좋은 옷입니다. 그 예전부터 해 놓으신 것을 못 주고 있다가 그때 그렇게 가져오셨나 본데, 그것을 가다가 혼인기가 있는 시골 처녀들 줘 버리고 갔습니다. 그 몸에다 그걸 입으면 뭘 합니까? 아무리 옷이 입을 게 없다 치더라도.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 입산을 했고, 또 입산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입을 게 없다 하더라도 그 옷을 어디다 걸칩니까? 그래서 그냥 버리고 산모퉁이에…, 그때 좀 추운 가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엽을 딛고 가는 그 모습,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아서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당해 보지 않으면 그 마음 모를 겁니다. 그냥 성해서 버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에 그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떠나니까 팔도 이렇게 쳐들지도 못하면서 요 손끝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걸 보고 떠난 뒤에 얼마 만에 돌아가셨다는 기별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돌아가신 뒤에 한번 가 뵀습니다. 허허허…. 그런 이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몸을 잡고서 아무리 애를 써 봤던들 그건 당치도 않아, 어머니를 구하려면. 어머니의 그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부처님의 마음도 불쌍한 사람들의 마음도 역시, 여러분이 자식을 기르고 부모를 생각하고 그러는 그 마음이, 또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요.

마음으로 안으로 굴리지 않는다면 그 길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굴림에 의해서 앞날이 펴지고 밝아지지, 거죽으로 "얘야, 너는 어떡하고 어떡하고 어떡하고…." 말이 많고 그러면 이거는 똑바로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오히려 삐뚜로 나가게 하는 수가 100% 될 수 있죠. 남편도 자꾸자꾸 "이것을 당신은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세상에 이렇게 해 가지고 삽니까?" 하고 그렇게 해 봤던들 오히려 그런 걸 번연히 알면서도 이것은 주장을 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파괴가 됩니다, 알면서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웠죠? 나는 배우지 못했지만. 저 햇빛을 따뜻하게, 여름에 무덥게 아주 쨍쨍 쪼여 보십시오. 그러면 입었던 옷도 훨훨 벗어 버립니다, 원리가. 그러나 아주 강하게 찬기가 오고 모진 바람이 몰아닥칠 때는 반드시 옷을 더 껴입고 더 옹그리고 더 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자기 한 꺼풀 한 꺼풀을 벗어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유스럽게 뛰어놀지 못합니다. 자유스럽게 살 수도 없습니다. 속박돼 있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허덕이고, '이것이 내가 업보가 얼마나 많기에 이런가. 팔자 운명이 얼마나 이렇기에 이런가. 내가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이런가.' 이러한 사념에 끄달리면서 그 암흑 같은 길을 걸어야만 하고, 그 걸어가는 길이 바로 자기의 밝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캄캄한 암흑 길을 걸어가니 이 몸을 벗는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낙향돼서 껌껌한 길을 또 걸어야 하는 그런 모임에 의해서 다시 인연이 돼서 또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 하나에 우리가, 세세생생의 삶에 의해서 거기에 그 인연 뿌리가, 인과 뿌리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모두가, 사람사람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더 그렇고, 이 공부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부라고 할 것도 없지요.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것이 전부 공부니까. 하나하나 뉘우치면서 하나하나 진화되면서 창조해 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옮겨 가면서 고정된 게 하나도 없고, 고정된 행도 없고, 고정된 말도 없고, 고정되게 먹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빈 그릇 그저 일렁일렁 움죽거릴 뿐입니다. 단지 내놓으라면 내놓을 것도 없는 마음이 자기를 움죽거리고 갑니다. 그 마음이 선장이라면 바로 그 선장은 나침반을 놓고서 그냥 가곤 있지요.

그런데 모두 여러분은 이 색에, 물질에 착을 두고 이름에 착을 두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금강경이다 화엄경이다, 몇 독을 했다 뭐, 천배를 했다 삼천배를 했다 하지만 육신으로써, 말로써 그것을 아무리 해 봤던들 그 뜻을 몰라서,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뒷면의 그 뜻을 몰라서 한마디도 옮길 수가 없고, 남한테 옮겨 봤던

☞ 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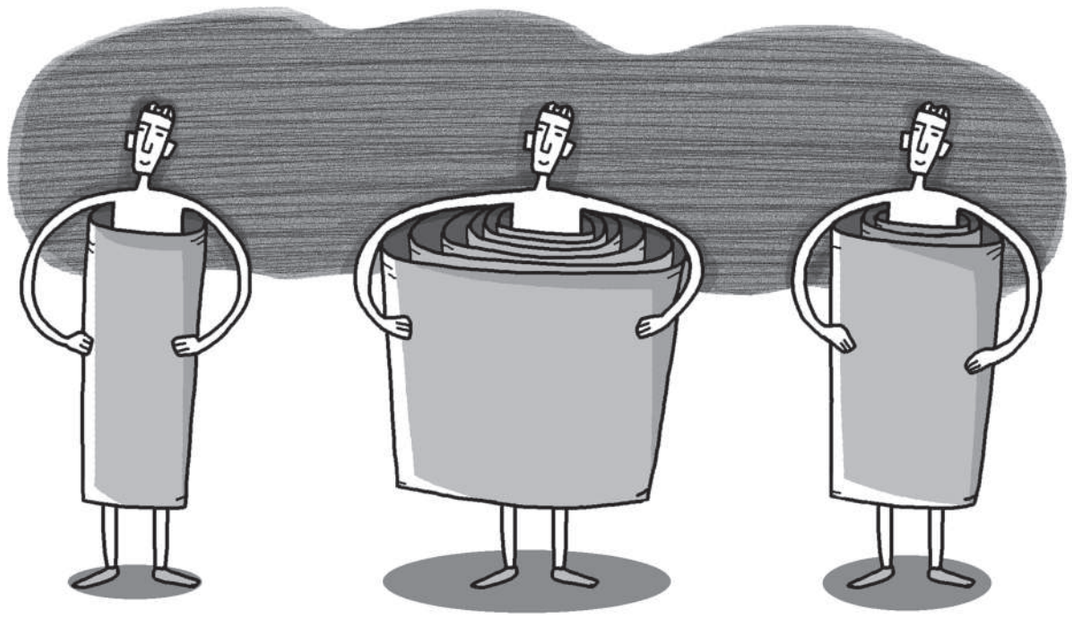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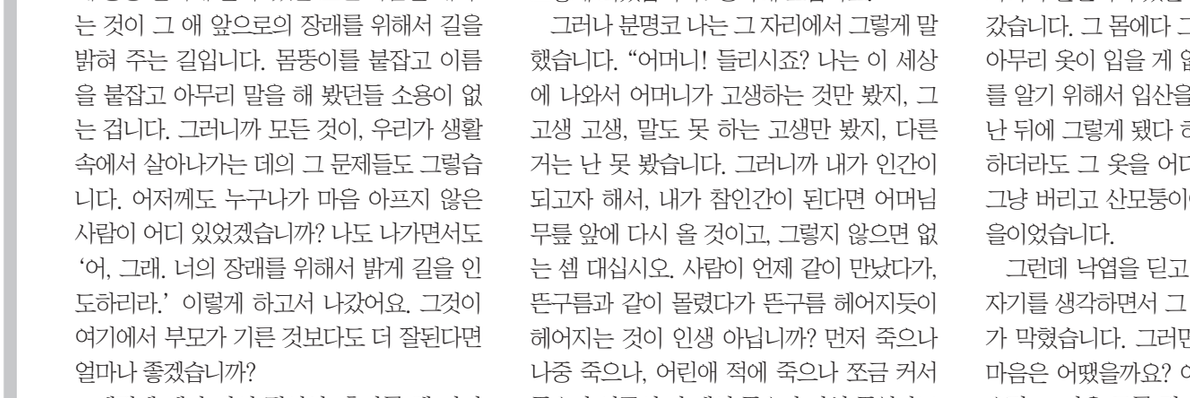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A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Q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 서울·경기 02-456-8831 · 충 청 도 010-6545-3350 · 전 라 도 011-248-6298
· 강 원 도 019-396-1110 · 경 상 도 010-4187-006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어떠한 악조건이 닥친다 하더라도 자기 주인공 한 점에 맡겨 놓으세요

☞ 17면에서 계속

들 이익이 하나도 없어. 공덕 될 게 하나도 없어. 자기로부터, 남으로부터 전체가 공덕 될 게 하나도 없거든. (중략)

그러니 우리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둘로 보지 말라. 안으로 굴리지 않는다면 보살이 아니니라. 깨쳤다 하더라도 안으로 굴리지 않고 바깥으로 도는 자, 이 법문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느니라. 이 법문을 제대로 전달을 못 함으로써 공덕은 하나도 없고 보살이 아니니라. 이 몸으로, 모습으로, 이름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고, 이 모습으로, 이름으로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자식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일체 만물의 유생 무생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굴릴 수가 없느니라. 제도할 수도 없느니라. 제도했다고 하느냐? 제도를 했다고 하지 말라. 본래 둘이 아니기에 제도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느니라. 그대로 마음으로 굴리면서 항상 따뜻한 마음을 내 주면 되느니라. 따뜻하게 둘로 보지 않는 마음, 남이 아프면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내 준다면 그것이 바로 네 아픔과 둘이 아니니라.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요, 진짜 들어가서는 인간의 마음이라. 인간이라는 것도 이름이요, 부처라는 것도 이름이니라. 여래라는 것도 이름이요, 다 이름이니 그 이름을 가지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이름 속에 소중한 것이 있느니라. 그 모습 속의 소중한 것을 발견하라. 발견하기 위해서는 안으로 보림을 하면서, 항상 그 안으로 굴리면서 거죽으로 나타내지 말고 경솔하지 말고 또한 항상 겸손하게, 남을 깔보지 말 것이며 벌레 하나를 본다 할지라도 너로 알아라. 저 꽃 이파리 저 나무 이파리, 무정물이나 하다못해 돌 하나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이 아니니라.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도 지, 수, 화, 풍으로 뭉쳐서 바람과 흙과 물 이 모든 것이 한데 합쳐져서 큰 성을 이루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구라는 집이 됐고 대천세계라는 집이 됐고 중천세계도 있고 하천세계도 있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는 것이 전체가 아닙니까? 당장 우리 살아나가는 데에 물이 없어도 아니 되고, 불이 없어도 아니 되고, 흙이 없어도 아니 되고, 바람이 없어도 아니 됩니다. 그럼으로써 사대가 공해서 태양이라는 그 자체의 따뜻한 그런, 보람 있는 밝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역시 그러한 밝음이, 우리를 전부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밝음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한마음 그 한 점의 근본이 태양의 근본도 될 것이요, 천지의 근본도 될 것이요, 우주의 근본도 되니 그 어디에도, 이 오온에 스스로 밝아서 돌고 스스로 밝아서 걸릴 게 없는데 어찌 이 오온에 칠보가 가득 차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아니 닿는 데가 없거늘 사람들은 모습과 이름을 칭하고 자기의 삶을 거기에서 취하려고 하니 그것이 가는 곳마다 걸려. 그 걸리는 것을 언제 어느 때에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부처님이라는 이름도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은 똑바른 참사람, 참사람이라는 것이 부처님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사람 되려고 욕심을 부리지도 말고 또는 참사람 아니 된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오직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한 점의 공한 자리에,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 다시 놓는다면, 다시 맡겨 놓고 믿음을 진실하게 갖는다면,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바로 거기에서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알게 되고, 그때는 부처님의 마음도 모든 중생들의 마음도 모든 걸 다 알게 되며 남한테 해하지 않는 마음, 둘로 보지 않는 마음이 됩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헐고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것이 몰락 없는, 높고 낮음도 없고 부처 중생도 없는 그러한 한 점의 내놓을 게 없는 이런 빈 그릇 자체가, 바로 우리가 찰나찰나 나투면서 밝게 비추어 주는 손 없는 손이요, 발 없는 발이요, 길 없는 길이라. 평이마요, 평손이요, 평발이요, 이것이 바로 한 손 들어서 천지를 삿갓으로 쓰고 한 손 들어 해와 달을 꿰어 굴리면서, 한 발 들어 이 산 저 산 푸른 산 한 발 디디니, 목마르면 물 마시고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다는 말이 얼마나 참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참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물 한 모금 떠 마실 때, 여러분이 목마를 때 '물 먹겠다' 하고 계산하고 먹습니까? 무심으로 그냥 떠 먹습니다. 그게 바로 참사람의 활용이야. 여러분이 금을 가졌다면 그걸 얼른 내놓지 않겠지만 걸레를 빨아 쥐었다면 빨리 내던질 겁니다. 빨리 빨아서 얼른 짜서 놓습니다. 금을 가졌더라도 빨리 짜서 걸레 놓듯 하십시오. 신발 벗어 놓고 올라가듯. 아시겠습니까? 금을 가졌다고 해서 이걸 소중히 생각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관리인만 되라는 얘깁니다. 착을 두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분수를 알고 살고, 건너뛰지 못할 걸 건너뛰다가 개천에 빠지지 말고, 구덩이에 빠지지 말고 서서히 침착하게, 산이 태산같이 이렇게 있으면 서서히 돌아가고, 구덩이가 있으면 구덩이를 채우고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침착하게, 어떠한 악조건이 닥친다 하더라도 안으로 굴리면서 그 자기 주인공 한 점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서….

거기서 나온 거니까. 자기로 인해서 나온 거니까, 악조건도. 자기로 인해서 악조건이 나온 것이지 딴 사람으로 인해서 나온 건 아니거든. 잘못했든 잘했든 자기가 있으니까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고서 한번 안으로 굴려서 바로 다시 놓는 그런 그 침착한 마음, 그리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둘로 보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스스로서 수레바퀴 돌듯 해, 시간과 공간도 없이.

이것이 참사람의 법입니다. 부처님의 법이라기보다도 참사람의 법을 알아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도 알 것이요, 한마디 한마디 해 놓으신 그 뜻을 우린 지금 현실에 맞추어서 현실의 용어로, 그때에 방편으로 쓰던 것을 현실의 방편으로써, 언어로써 이렇게 대치해서 그것을 서로에게 이득이 되고 공덕이 되게끔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악조건의 그 구정물, 핏물, 고름물 전부 한데 합쳐서, 한데 새겨서 말갛게 만들어서 생수 물을 해서 떠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한 방울의 생수가 아니라면 이건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의 그 뜻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한마디 같이 안 해도 같이 오고 감이 없이 전달이 되고, 미국이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한번 말만 들었다 하면, 그 마음만 내면 서로 전달이 되고, 돌하고도 전달이 되고 돌하고도 말을 하게 되고 일체 만물과 더불어 같이 서로 말을 하고 서로 듣고 서로 공생하고 공체로서 돌아가는 조화를 이루니 그것이 바로 보살이며 부처이며, 그것이 인간이며 그것이 법신이며, 보신이며 화신이며 용왕신이며…. 용왕신이란다고 용왕신 따로 있고 모두가 따로…. (녹음 안됨) (중략)

나는 이날까지 살면서 '부처가 된다. 내가 위대하게 돼야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사람은 어디까지나 지옥을 거치지 않는다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듯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 안 해 본 것은 아픈 줄도 몰라. '아! 남이 그렇게 아팠다더라.' 이런 정도지, 그렇게 실감 나게 아파 보지 못해. 어디고 한 번씩은 다 들어가서, 물속에 빠져 보기도 하고, 불 속에 뛰어들어 보기도 하고, 떡 그릇에 엎드러져 보기도 하고, 번연히 알면서도 엎드러져 보는 그러한 패기가 있어야 하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이 공부는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비구 비구니가 따로 없고 여자 남자가 따로 없고 애 어른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적부터 어른입니까? 어른 된 지 며칠이나 되십니까? 또 애 된 지가 며칠이나 됐습니까? 허허허…. 우리가 옮겨 갈 뿐이지, 모습을 바꿔서 옮겨 갈 뿐이지 죽는 게 아니다. 그래서 생사윤회에 걸리지 말라. 본래 온 게 없기 때문에 본래 갈 것도 없어. 이 모두를, 이렇게 된 상황을 잘 아신다면…, 사량으로만 알고 이론으로만 알아서도 그 속의 근본을 몰라서 자비가 나오질 않아. 스스로 자비가 나와야 할 텐데 스스로 자비가 나오질 않으니까 가상적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니 그게 되나? 가다 가다가 그냥 그것은 어디로 가 버린 채 금방 자비를 냈건만도 그건 말뿐이었지, 이론뿐이었지, 돌아서면 그냥 도둑놈이야. 여자 남자를 막론하고.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면서 먹을 줄 알아야 하고, 먹으면서 쌀 줄 알아야 되고, 싸면서 잘 줄을 알아야 한다. 이건 끊임없는 길을 말하는 거죠. 자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그 공한 한 점에서 나오는 거 한 점에다 다시 맡겨 놓는 작업을 하는데, 습이 다 떨어져서 녹아 버리니까 그만 푹 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푹 쉰 사람이, 빈 그릇이 된 그 사람이 만약에 이 모든 법을 굴린다면 하나 깔축없이, 걸림 없이 굴릴 거라 이겁니다. 담았다 꺼냈다 담았다 꺼냈다 해도 항상 그릇은 비어 있을 테니까. 그러니 그렇게 담았다 꺼냈다 담았다 꺼냈다 하는 게 아니라 담으면 싸 버려. 담으면 싸고 담으면 싸고. 싸면서 또 자. 이 세 가지의 뜻에 우리가 평생을 배워도 못 다 배우는 진리가, 근본이 거기 들었어요. 자고 먹고 싼다 하는 그 세 마디에 다 들어 있다 이거야, 부처님 법이.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진짜로 나는 여기를 믿고 다닙니다. 나는 공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 자기를 자기가 못 믿고 자기가 자기 부처를 못 믿고, 자기 형상만 보고서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 자기 그 공한 빈 그릇을 모르니까. 고정된 게 어딨다고 그게 비지 않았다는 겁니까, 모두가. 자기가 어디 있어? 어떤 사람 만날 때 자기라고 할까? 남편을 만날 때 자기라고 할까, 부모를 만날 때 자기라고 할까, 자식을 만날 때 자기라고 할까. 순간순간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는데. 그러니 공했다는 건데, 그 공한 데서 그렇게 무수히 나오는 그 자체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니 거기다가 맡겨 놓고, 자기는 거기서 형성된 거니까 그대로 공부하다 보면 자기 마음과 실상이 그대로 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그대로. (중략)

오늘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생활을 하시면서도 누구의 원망도 탓도 하지 마시고 항상 안으로 굴려서, 자식이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고, 또 잘못 나간다 할지라도 그렇고,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고 항상 내 마음 안에,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다가, 바로 그 공한 거기에다가 모든 걸 맡겨 놓는다면 그 길이 수월하게 밝혀지면서 가환, 우환, 병고, 액난이 다 스스로 녹아져 버려. 한 번 두 번 스님한테다 얘기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대로 그거 녹아져 버려.

어딜 가나, 자나 깨나, 낮과 밤도 없어. 이 도리에는 꿈도 생시도 없는 것이라. 낮과 밤도 없어. 동 서도 둘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잘 적에도 나를, 길을 인도하는 당신께서, 당신! 바로 이 몸도 당신, 이 실상 자체 마음과 더불어 육신 자체, 모두 내고 들이는 게 당신이야. 그러니 당신이 나를 잘 이끌어서 나의 이 사량적인 분별을, 모든 거를, 길을 밝혀 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관하고, '참 당신은 도대체 내가 알 길이 없으니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관하세요. 화두를 잡고 화두를 쥐고 그러지 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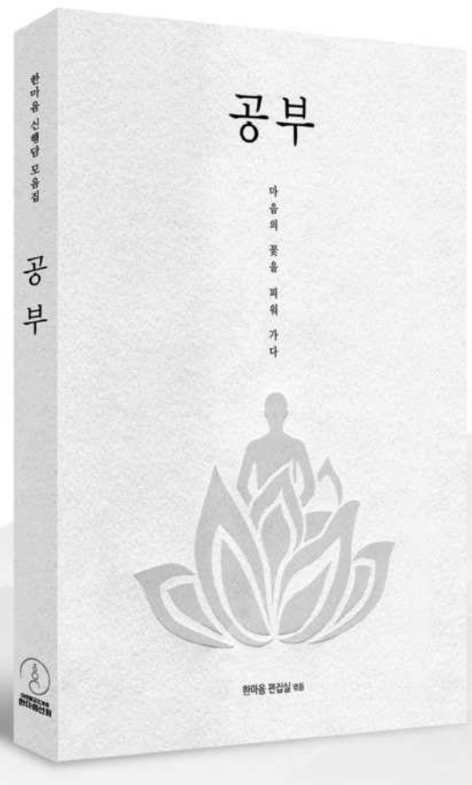
이게 화두라, 이게. 내 공한 몸뚱이가 화두니 그 몸뚱이에서 나오는 거 몸뚱이에다 다시 놓고 믿고 거기에다가 모든 걸 놔요. 그런다면 자기가 억겁을 거쳐서 나온 그 습, 종 문서는 몽탕 타 버릴 테니까. 내놓을 수 없는 원자력이거든. 자력이 돼서 그냥 닿기만 하면, 갖다 놓기만 하면 타 버리는 거라. 그래서 자기 눈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눈물이 스스로 흐르게 되고, 그 흐르게 되는 눈물은 바로 그 습의 업이 그대로 녹아 버리는 거라. 다 녹는 거라.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물 속에 빠져 보기도 하고 불 속에 뛰어들어 보기도 하고
떡그릇에 엎드러져 보기도 하고,
번연히 알면서도 엎드러져 보는 그러한 패기와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위 법문은 1986년 5월 20일 일반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역경은 부처님 가피
〈逆境〉

역경은 사람을 만들 수 있고 파멸시킬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 갈림길입니다. 힘과 행복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오래가는 고통의 원인도 될 수 있어요.

역경이 있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부정적인 마음의 습관을 주의해야 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절망에 체념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쉬워요. 용기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용기는 절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이 커질 공간을 주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역경이 생각만큼 어렵지 않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역경은 인간이 되는 입문입니다.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⑩ 티베트–포탈라궁과 암드록초 호수

관음보살 주석하는 곳 '포탈라'

라싸의 새벽은 마니차를 돌리며 빠코르(八角街)를 순례하는 사람들과 오체투지를 하는 신심 있는 티베트 불자들로 장엄하기만 하다. 그 중심에 포탈라궁이 주인을 잃은 채, 아침 햇살에 관음보살의 미소인양 희망으로 자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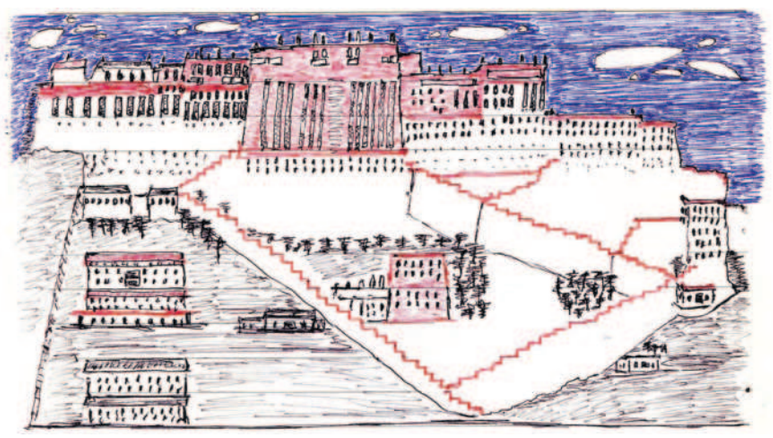
노블링카궁은 라싸에 있는 달라이라마의 여름 별궁과 그 정원이다. 노블은 '보물', 링카는 '정원' 이라는 뜻으로 '보물의 정원' 으로 불린다. 1997년에 개봉되어 화제를 모은 영화 '티베트에서의 7년' 의 실제 주인공인 하인리히 하러의 도움으로 1950년대 작은 영화관을 만들기도 하였었다. 이곳에서 매년 8월에는 티베트불교 최대의 축제인 '쇼뚠제(雪頓祭)' 가 열린다고 한다. 주인 잃은 궁전의 어딘가에서 어린 달라이라마가 뛰어놀다가 문득 나와 눈이 마주칠 듯 하다.

라싸 근교의 드레풍사(哲蜂寺)는 쎄라사(色拉寺)와 간덴사(甘丹寺)와 함께 티베트 불교 3대사찰로 쫑카파의 뜻을 받들어 1416년 잠양초제에 의해 창건되었다.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하얀 쌀포대를 쌓아 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겔룩파 6대 사찰 중에 으뜸인 이 승원은 17세기에는 1만 명의 승려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500여 명의 승려들이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은 5대 달라이라마가 포탈라궁을 짓고 그곳으로 옮기기 전까지 2대부터 5대 달라이라마가 지내던 곳이다. 대전(大殿)에는 그들의 영탑이 모셔져 있다. 대전에는 183개의 나무기둥이 있으며 오색찬란한 탕카가 걸려있다. 이 안에서 9000여 명의 승려가 함께 불경을 읽고 예식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곳은 하나의 큰 사원촌으로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큰 승가대학이라고 할 것이다.

매년 8월에 열리는 쇼뚠제는 사원 왼편 언덕에 대형 탱화가 걸리면서 시작되고, 그 시기에는 전국의 순례객들로 인해 그야말로 인산인해의 장관을 이룬다. 쫑카파를 새긴 바위에 걸터앉아 좌선삼매에 들어 병풍같은 산과 사원, 그리고 저 멀리 알룽창포 강을 바라본다. 어쩌면 어느 전생에 한 번은 이곳의 승려로 살지 않았는가 싶다. 바위를 뚫어 만든 작은 토굴에 자꾸 눈과 마음이 간다. 이곳에서 언젠가 꼭 한번 수행정진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서원을 세워본다.

포탈라궁은 달라이라마의 겨울궁전으로 641년



라싸의 포탈라궁 스케치. 달라이라마의 겨울궁전이다.

송쩬감뽀 라싸 천도 후 조성
현 궁전 13대 라마가 만들어
고산병 고생해도 대중들 환희
주인없는 궁전에 적막감 느껴

송쩬감뽀 대왕이 라싸로 천도한 후에 건축되었다. 그 후 1642년 5대 달라이라마를 왕으로 하는 간덴왕국이 성립된다. 현재의 포탈라궁은 13대 달라이라마 때 이루어진 것이다. '포탈라' 는 '관음보살이 산다' 는 뜻의 범어 '보타낙가(普陀珞珈)' 에서 유래한다. 티베트에서 달라이라마는 관세음보살의 화현으로 추앙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포탈라궁 전체가 마치 반야용선을 상징하고 구현한 듯한 모습이다.

포탈라궁을 올라가는 오르막길은 고산증세로 인해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행길이다. 그래도 스님들은 행복한 미소로 함께하며 환희와 찬탄을 금치 못한다. 지금, 이때가 아니라면 언제 다시 오겠는가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다. 다만 주인 없는 포탈라궁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고 황량하기만 하다. 광장에 핏빛으로 휘날리는 오성홍기를 보니 더욱 심사가 처연하기 이를 데 없다.

세라사원(色拉寺)은 라싸의 3대 사원 중에 가장 늦게 지어진 사원으로 1419년 쫑카파의 제자인 샤카 예쉬에 의해 창건되었다. 한때 5개의 교육기관에 7000명의 승려가 거주했으나 지금은 3개의 교육기관에 300여 명의 승려만이 남아있다. 티베트어로 '새' 는 '장미' 이고 '라' 는 '신' 이라는 뜻으로, 창건당시 이곳에 들장미들이 많이 피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티베트의 전통적 문답식 토론인 '변경(辨經)' 으로 유명하며 오후에는 마당에서 행해지는 토론 광경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이곳의 마두명왕 보살이 아이들의 건강과 행운을 지켜준다고 믿어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참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원 담장 주위를 도는 코라 순례를 하면 더욱 흥미롭고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할 수가 있으며 간혹 천장(天葬)도 볼 수가 있다.

저녁 공양 후 포탈라궁의 야경을 보기 위해 나섰다. 광장에서 바라보는 포탈라궁의 신비하고 장엄한 아름다운 풍광에 압도되어 찬탄과 환희의 눈물바다를 이룬다. 그러나 지금은 주인을 잃고 침묵한 채, 눈물방울로 은하수를 이루는 듯 한 모습이다. 정녕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지, 정든 님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그날 밤의 꿈에 수천 수만의 가루다를 닮은 독수리들이 날아와 포탈라궁을 번쩍 들어올린채, 반야용선이 되어 서방정토를 향해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정말이지 꼭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날 아침 버스에 올라 지도법사이신 혜총스님의 집전으로 예불과 〈반야심경〉을 봉독하고는 축원과 함께 광명진언을 합송했다. 큰스님의 자비와 대중의 덕화로 이번 순례가 원만성취되길 빌어본다. 한참을 달려 높은 언덕을 넘어서니 티베트의 4대 성호(聖湖) 가운데 하나인 암드록초 호수가 나타난다. 전설에 의하면 여신이 변해서 이 아름답고 푸른 호수가 되었다고 한다.

암드록초 호수가 보이는 전망대에는 오색의 타르초가 바람에 휘날린다. 이곳에서 지난해 꽃다운 나이에 진도 앞바다에서 스러져간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해 전국의 불자들이 청계천에 단 노란 리본을 가져와 매달았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추모제를 올려 드렸다. 부디 이고득락하여 저 오색의 타르초나 룽다처럼, 천개의 바람이 되어 하늘로 날아 올라가 행복하기를 빌었다.

그들을 추모하는 어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조계종 교육부장〉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부처님은 평생 걸식의 삶을 사셨다.



불 · 법 · 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불교대학) 도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 내)
☎ 055)633-6555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세존의 일불제자로써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 곁에 세존을 닮아가는 불법(경전)의 바른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는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래서 현자들은 삭발염의를 꺼리고 있으며 다만 불법은 시장통 이천원짜리 국밥집 할머니의 넉넉한 국자 속에 있고, 장바닥 난전에 꿰매고 덧댄 허름한 소쿠리에 있고, 폐지 주워 판돈으로 유기견을 돌보는 독거노인의 구루마에 있으며, 밟아도 밟아도 돋아나는 이름 없는 풀뿌리에 있을 뿐이다.

일부 사찰은 불교대학까지 운영하며 정법을 한다면서 실제 하루 종일 하는 행위는 삼재풀이 기도 산신 · 용왕 · 사주 철학 · 방생 · 성지순례 · 기왓장장사 · 다도 · 수능합격 기도 · 신년기도 · 위폐(만년 · 평생 · 영구) 스님생일(어느 큰스님 법문에서 출가자가 생일 찾는 것은 정신 나간 일.....) 우담바라 · 각종바위 · 바위에 동전 붙이는 행위 · 남성 심벌만지는 것 · 탑돌이 · 경을 머리에 이고 도는 행위 · 돈 액수에 따른(큰등 · 작은등) · 등종류(108 · 사업성취 · 재수 · 합격 · 승진 등등) · 그림(달마도 등) · 극락발원티켓 · 철야기도 · 각종신도회 · 절 짓는 불사 · 각종기도(운맞이 · 운수대통 · 재수대통 · 해돋이 등) · 진산식(거지가 진 산식 이라니....) · 합창단 · 산사음악회 · 천도재(소천도재 · 대천도재 · 특별천도재 등)... 도대체 불교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 생전예수재는 재 지낼 돈으로 불우이웃에 기부하고 미리 선업을 닦기 위해 장애인단체, 요양원, 빈민촌락가 아니면 고향 부모 찾아 효행하도록 함.**

*** 천도제나 49재는 조현병환우와 같이 영가를 다루는 일이다.**

천도제나 49재는 지내면서 조현병환자는 왜 정신병원 운운하나, 조현병환자의 특징은 내가아닌 절대자(영가)가 정신을 뺏어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재는 그 대상을 직관을 통해 수행력(법력)으로 영가를 제도해야 할 것이고, **그 직관능력이 없는 자가 재를 지낸다는 것은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할 뿐이다.**

제발 좀 어느 큰 스님처럼 솔직해지자.

또 산문에 수능합격기도 한다고 현수막 걸어놓고 합격발원문에 수험생 사진까지 붙여서 부처님 전에 들이미는 행위, 삼재풀이기도 한다고 남녀 속옷을 그 신성한 부처님 면전에 올려놓는 행위들을 하며 추잡하고 저질스러운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크고 작은 절 할 것 없이 어른들은 뭘 하는지 만약 **그곳에 바른 수행자나 아라한과를 얻은 이가 있다면 그걸 그냥 보고도 못 본 체 했겠는가.** 큰등 · 작은등 · 인등도 마찬가지다. 그걸 묵인한다면 아라한도 바른 수행자도 아니지. 이러한 무당 행위를 하루 종일 하는데 거기에 무슨 가피가 있겠으며 불보살을 비롯 모든 신장이 처음부터 외면할 것이다.

(사례1: 실명→ 광명)

* 현재도 기독교인인 보살이 아들문제로 법회마치고 친견을 하고 싶다고 한다. 아들이 고3학년인데 학급에서 반장하며 공부도 잘했었는데 근래에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공부가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아들을 스님기도 좀 받으면 하길래.... 이런 내기도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하며 쓸데없는 짓 한다고 나무라자, 물러서지 않고 부부가 난감해하는 것이다. 왜 그런고 하면 이분들은 2016년도에 딸이 조현병으로 인해 인연이 되었지만, 여기 오기 전 전국 유명한 대형사찰 · 목사 · 신부 · 무당 · 기 치료사 · 체면술사 · 퇴마사 등등 찾았지만 결국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을 때, 소승이 어느 큰 단체에 법문을 나갈 때 처사님이 유일하게 불자신분으로 거기에 왔다가 알게 되었음. 그럼 아들이 내기도 받겠다고 하더냐 하니 누나를 롤 모델로 봤는지 기도를 받겠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그때가 안거중 이었고 그놈은 방학을 목전에 두고 있었기에 방학하면 하자고 하며 0월 0일날 새벽 안거에 데리고 오라고 했다. 참고로 소승은 기도를 항상 대중이 다 보는데서 하며 일부 신도님들(5~10명)은 기도에 동참 시킨다. 그래서 **여기는 사부대중 전원이 목격자이고 사례자들이다.** 신도님들과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직관을 했다. 이놈은 머리가 아니고 왼쪽 눈 하고 왼쪽 발목이야 하며 첫날은 눈 기도를 해주었고 둘째 날은 발 기도를 해주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멘붕이 온다는 것이다. 스님이 어떻게 정확하게 다 아는지 하며, 스님이 무섭다고..... 스님이 뭐 도사라나. 참고로 발목은 축구를 하다 다쳤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요법회날 부모와 함께 아들이 들어오며 선뜻 내 앞에 와서 합장을 하며 서류를 한 장 내미는 것이다. 그 서류를 보니 안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이다. 왜 이런 걸 나한테 가져오냐고 하자 그 부모가 스님때문에 군에 가게 됐다고 하길래, 무슨 소리냐 하며 앞에 나와서 얘기하라 했다. 사실은 아이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왼쪽 눈 신경조직이 죽어감에 실명위기에 있었고, 그걸로 인해 군대는 물론 사회진출에 큰 장애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군 입대 영장이 나오자 안과에서 장애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키 위해 검사를 했는데 모든 게 정상으로 나온 것이다.

년년이 그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군 입대 연기를 하고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

(사례2: 조현병)

* 사회복지사가 부탁을 한다 "한 사람 좀 살려 달라"고 조현병인데 24시간 몸이 아파 잠도 못자며 종교는 불교란다. 그럼 0월 0일에 데려오라 하며, 환우 보호자가 꼭 같이 오라했다. 약속한 날 세 사람이 왔는데 여기 스님보고 우선 얘기를 해보라 하고, 나는 서둘러 일을 끝내고 친견실에 오니 노보살 한 분이 슬그머니 일어나 나가길래 그 일행을 시켜 들어오게 했는데 안 들어오는 것이다. 알고 보니 밖에 있는 이는 시어머니고 한분은 친정어머니며 환우는 40세 중반 여성이다. 지금부터 물을테니 소상히 답변하라 하며 묻기 시작했다. 어느 절에 다니는지 부적 · 삼재풀이 · 기도(산신 · 용왕) · 사주 · 방생 · 성지순례 등등 구체적으로 물으며 지금 부적을 소지하고 있느냐 하니 가지고 있다고 한다. **왜 갖고 있느냐 묻자 스님 삼재풀이 · 기도 · 부적 등등 안 하는 절이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럼 그것 가지고 있으면 병도 낫고 또 소원 성취한다고 그 절 스님이 합디까. 한평생 그들의 유혹에 빠져 그런 것들만 하니까 당연히 사기운이 엄습해서 정신을 도둑질 당해서 일어나는 조현병(정신병)등등을 앓을 수밖에.....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 사찰 스님한테 일생을 매달리지 왜 왔어요? 하는데 환우는 계속 통증을 호소하며 친정엄마와 같이 모녀가 살려 달라고만 한다. 내가 안 아프게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시간 이후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오라고 여기 스님과 친정모친을 보냈는데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저 분은 어느 절에 다니느냐고 하자 충청도 대형사찰에 30년 지기란다. 그래서 환우한테 물었다. 그럼 거기서 몸 낫게 한다고 각종기도와 재를 몇 번이나 했고 금전 손실은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큰 천도재와 구병시식을 7번이나 했다고 한다. 근데 왜 이 모양이냐고 하자, 스님! 스님! 만 하고 있다. 아니 시어머니가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하니.... 오로지 아프다고 좀 살려달라고만 한다. 두 분도 문제는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저 밖에 있는 저분입니다. 나가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데리고 오세요. 하며 스님과 친정모친을 내보냈다. 그리고 바로 들어오기는 오는데 문 턱에서서 안을 보길래, 소승이 그의 눈을 보며 무엇이 두려워 이 스님 앞에 오지 못하나 하자, 그 큰절 30년지기 인데 의리 때문에 끊지 못합니다 하며 일행을 불러내어 가버린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 시어머니가 30년지기를 끊을 때 그때 오십시오 하며.... **한국불교 현실이 개탄스러워 두 모녀 보고 그 절에 가서 변상을 요구하라 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출가자라면....**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

어느 큰 스님께서 저잣거리에 도인은 없고 앵무새들만.....

자 또 다시 각 방송매체와 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이들에게 제안한다. 몇해전 jtbc방송에서 '10대점술가를 찾아서' 라는 이런 프로는 사양하고 이제는 참 수행자대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또 세계0상대회, 세계00선대회, 즉문즉설 등 앉아서 말만하는 말잔치는 그만하고, 수행자답게 입은 굳게 다물고 수행력(법력)을 나툴 수 있는 장을 열자. 분명 말로 하는 것은 출가자의 몫이 아니다. 이미 정신상담, 마음챙김, 마음다스리기, 명상 등은 각 분야 교수를 비롯 유학파 석 · 박사들과 김제동 같은 연예인을 비롯 전문인들이 차고 넘친다. 이것은 분명 저들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정신병(조현병)등이 오기 전 예방교육에 불과하다. 특히 정신을 잃어버린 조현병 등은 정신병원에 보낼 것 이 아니고 수행자의 법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 세계00대회와 명상단체에서 찰나에 이동하며 공중부양을 한다나.. 그런 것 한들 저들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하나의 눈속임이지 여기에 은산철벽운운하며 수십안거를 충만했다는 이와 방송스타급 종교인모두 점검차(시험차) 출현해야할 것이다. 수행자는 수시로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때 점검(시험)내용은 말기암환자(전이된 암환자), 희귀병(백혈병등), 정신을 잃어버린 조현병 등 3종류의 환우를 수행자의 기도(법력)를 통해 새 희망을 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노보살님들이 입만 열면 우리 절은 천년고찰이고 영험하며, 우리스님이 신통하다며 많이도 하던데 사실이라면 우물 안에서(절집에서) 소문만 무성하게 하지 말고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광장에 나와 그 수행력(법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 평생 주지한번 안하시고 명예나 권력까지도 마다하시며 오로지 옷 한벌로 수행자로 살다 가신 소승의 법 은사께서 항상 일러주시던 말이 생각난다.

"**성불은 출가자의 목표가 아니다, 다만 출가자가 꼭 거쳐야할 과정이며 우리의 목표는 성불을 통해 중생을 이익되게 해야한다. 중생의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면 그것은 성불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하셨다. 오늘따라 스승이 그립다.

※ 접수처 055-633-6555 (010-3143-5302)
연등사(선재불교대학) | **도 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우:53211)

사례자 연락처

- **010-3143-5302 (윤 ○○)**
- **010-5699-3173 (박 ○○)**
- **010-8291-9423 (변 ○○)**
- **010-9707-4808 (박 ○○)**
- **011-9143-0098 (김 ○○)**
- **010-4807-6932 (박 ○○)**



❖ 본 내용은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